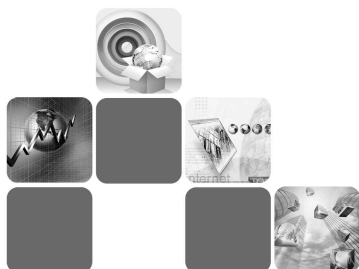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2021-5호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27

1. 베트남 - 음향기기 28
2. 네트워크 장비 32
3. Ex-Briefing 38

III. 부록 42

1. ICT 생산 통계 43
2. 2021년 4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4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1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7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58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1.4월 ICT 수출은 170.6억 달러(32.6%↑), 수입은 107.8억 달러(21.5%↑) 기록

- (수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대비 32.6% 증가한 170.6억 달러로 '20.6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
-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늘어났으며, 국가별로는 일본 등이 감소했으나 중국(홍콩)·미국·EU·베트남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은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94.0 (29.4)	16.7 (35.1)	12.4 (89.7)	1.1 (59.1)	11.2 (3.9)	170.6 (32.6)
중국(홍콩)	56.6 (20.8)	8.8 (28.3)	3.6 (114.5)	0.0 (△56.7)	4.2 (3.5)	80.4 (21.6)
미국	6.7 (△4.8)	0.2 (50.1)	3.0 (79.1)	0.0 (26.5)	3.5 (△3.7)	21.3 (25.2)
일본	1.1 (15.6)	0.1 (△48.6)	0.1 (△49.7)	0.0 (△93.4)	0.3 (34.7)	3.2 (△1.4)
EU	2.1 (10.8)	0.2 (△4.9)	1.9 (115.1)	0.2 (348.4)	1.4 (△3.0)	10.9 (24.7)
베트남	9.8 (88.7)	6.7 (46.7)	2.3 (58.7)	0.1 (65.9)	0.1 (112.5)	23.9 (67.0)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대비 21.5% 늘어난 107.8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디스플레이(3.0억 달러, △14.1%)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46.8억 달러, 28.1%↑), 컴퓨터 및 주변기기(13.6억 달러, 14.2%↑), 휴대폰(8.4억 달러, 10.6%↑) 등은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43.1억 달러), 베트남(13.4억 달러), 미국(14.0억 달러), EU (5.7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62.9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1년		2020년	
		4월P	1~4월P	4월	1~4월
수출	전체 산업	511.9 (41.1)	1,976.7 (18.8)	362.7 (△25.6)	1,664.5 (△8.3)
	ICT	170.6 (32.6)	660.2 (18.0)	128.7 (△15.3)	559.6 (△3.7)
수입	전체 산업	508.0 (33.9)	1,869.0 (17.2)	379.3 (△15.8)	1,594.3 (△5.6)
	ICT	107.8 (21.5)	416.5 (19.5)	88.7 (△6.4)	348.5 (△1.5)
무역 수지	전체 산업	3.9	107.7	-16.6	70.2
	ICT	62.9	243.7	40.0	211.1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21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성장이 확대될 전망

- (시장 전망) '21년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메모리·비메모리 시장 동반 성장으로 2년 연속 호조세가 예측('20년 10.4% ↑ → '21년 16.9% ↑)(Gartner, '21.3월)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및 신규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장기 호황이 예상되면서 '21년 반도체 시장은 16.9% 증가한 5,451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메모리 시장(1,551억 달러, 24.5% ↑)은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온라인 스트리밍 등 비대면 환경에 따른 PC 및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24.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비메모리 시장(3,900억 달러, 14.1% ↑)은 수요 증가에 따른 파운드리 공급 물량 부족이 심화된 가운데 5G·AI·IoT·무인차 등 신규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22년에는 장기 호황 지속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비메모리 시장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그림 1-1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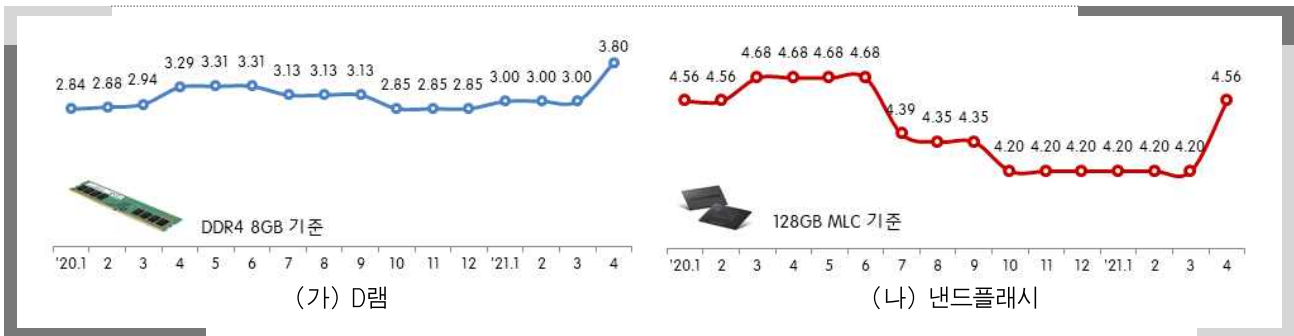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1.3.

□ '21.4월 메모리 고정거래가격은 그 동안의 수요 증가가 반영되면서 크게 상승

- 보합세를 지속하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수요업체의 재고 확보 등 수요 증가에 따라 '21.4월 D램·낸드플래시 모두 급등했으며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D램) '21.1월 3.00달러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보합세를 지속하던 PC용 D램(DDR4 8Gb) 고정거래가격은 2분기 계약이 시작된 '21.4월, 그 동안의 수요 증가가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26.7% 상승한 3.8달러를 형성하며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
 -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노트북 생산 확대, 세트업체의 재고 확보 움직임 등으로 PC용 D램 가격은

- ’21.2분기 8%, 3분기 3~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 호황 진입의 전조로 예측
- (낸드플래시) ’20.10월부터 6개월간 4.2달러에 머물러 있던 메모리카드·USB형 낸드플래시 범용제품 (128Gb 16Gx8 MLC) 고정거래가격은 ’21.4월, 전월대비 8.57% 상승한 4.56달러를 형성. 향후 고객사 수요와 공급사 제품 변경 등으로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측

그림 1-2 |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고정거래가격, 2021.4.

□ 주요 반도체 업체는 미국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현지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삼성전자)**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5.21일)
 - ’21.5.21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발표. 삼성전자는 건설지 선정을 위해 텍사스·애리조나·뉴욕 등 주정부와 협상 중인 가운데 기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이 유력하다는 분석
 - ※ 기존 오스틴 공장에는 14nm 공정 기술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을 운영
 - 신규 공장은 이르면 ’21.3분기 착공에 들어가 ’23년 가동이 예상되며, 해외 생산라인에는 처음으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활용해 선풍 5nm 이하 첨단 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3nm 라인이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
- **(SK하이닉스)** ’21.5.21일 개최된 라운드 테이블에서 실리콘밸리에 10억 달러 규모의 AI·낸드플래시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 미국 내 생산기지는 없지만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본격 동참
 - ※ SK하이닉스는 ’20.10월 90억 달러에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반독점 심사 절차를 진행(8개국 중 미국·EU가 인수를 승인)
- **(TSMC)** ’20.5월 1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5nm 파운드리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 이후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1.4월 공장 5개를 추가적으로 증설하기로 했으며 최첨단 공정인 3nm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
 - ※ 이에 따라 당초 100억~120억 달러였던 투자 규모는 36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 **(인텔)** ’23년 완공 목표로 2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 결정(’21.3월)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동반 성장으로 '21.4월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세

- (품목별) '21.4월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호실적을 달성하며 전년 동월대비 29.4% 증가한 94.0억 달러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 59.3억 달러, 18.8%↑)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데이터 센터, PC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MCP, D램 등을 중심으로 증가. '20.9월 이후 8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시스템 반도체: 29.4억 달러, 59.0%↑) 파운드리 등 수출이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달성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
 - 중국(홍콩 포함, 56.6억 달러, 20.8%↑)은 시스템 반도체(60.0%↑)와 메모리 MCP, 복합부품직접 회로(MCOs)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11.0%↑)가 성장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베트남(9.8억 달러, 88.7%↑)은 메모리 MCP, D램 등 메모리 반도체(170.4%↑) 호조세 지속과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47.3%↑)가 반등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표 1-3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4	5	6	7	8	9	10	11	12	'21.1	2	3	4
반도체	72.6 (△15.1)	81.5 (6.5)	83.6 (△0.5)	79.6 (5.2)	82.9 (2.6)	96.0 (11.9)	87.5 (10.1)	86.7 (16.0)	95.5 (29.5)	87.8 (20.4)	84.4 (12.5)	95.7 (7.9)	94.0 (29.4)
메모리	49.9 (△14.9)	57.8 (9.8)	57.7 (△2.0)	49.7 (5.0)	50.7 (△2.3)	61.9 (9.8)	54.3 (9.0)	51.9 (7.3)	59.9 (25.1)	53.2 (24.9)	52.2 (12.6)	61.2 (8.2)	59.3 (18.8)
D램	27.3 (△2.4)	28.4 (20.2)	29.5 (18.1)	25.2 (16.3)	24.3 (8.1)	29.3 (24.6)	25.2 (14.2)	23.7 (8.3)	25.1 (18.9)	23.8 (19.8)	22.7 (5.6)	26.9 (1.3)	28.7 (5.1)
낸드	5.3 (△20.5)	4.8 (1.2)	4.8 (9.5)	4.9 (△1.3)	5.0 (4.2)	5.8 (44.9)	5.1 (△1.4)	5.0 (12.2)	6.8 (77.2)	4.9 (△13.5)	4.6 (△7.4)	4.4 (△9.7)	4.9 (△7.7)
MCP	14.4 (△9.3)	21.2 (44.9)	19.0 (△4.4)	15.7 (9.7)	17.8 (0.6)	22.6 (14.7)	19.6 (21.9)	19.2 (27.7)	23.9 (34.7)	20.7 (59.5)	21.4 (41.7)	25.4 (26.0)	22.0 (52.2)
시스템 반도체	18.5 (△13.0)	19.4 (5.2)	21.4 (6.8)	24.6 (8.1)	27.1 (15.9)	28.5 (16.8)	28.2 (14.9)	29.8 (39.1)	29.9 (44.8)	29.1 (15.9)	27.0 (13.2)	29.0 (9.3)	29.4 (59.0)
개별 소자	1.1 (△13.2)	1.1 (△17.5)	1.2 (△6.5)	1.4 (△3.1)	1.3 (△3.7)	1.4 (9.6)	1.4 (2.6)	1.5 (12.7)	1.5 (17.1)	1.5 (30.2)	1.4 (10.4)	1.5 (12.6)	1.5 (34.6)
광전 소자	2.1 (△35.8)	2.2 (△31.1)	2.2 (△22.7)	2.8 (△9.7)	2.7 (△13.2)	3.0 (11.8)	2.4 (△11.4)	2.3 (△9.3)	2.9 (△1.9)	2.8 (△12.5)	2.7 (0.1)	2.7 (△8.9)	2.6 (24.2)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4월 당월				1~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99.1	6.9	39.8	중국	35.2	12.6	37.5	136.1	15.7	37.6
2	홍콩	207.4	-7.0	20.7	홍콩	21.4	37.0	22.7	77.9	11.6	21.5
3	베트남	115.1	7.0	11.5	베트남	9.8	88.7	10.5	39.8	6.3	11.0
4	미국	80.7	25.8	8.1	대만	7.7	119.5	8.2	30.2	111.9	8.3
5	대만	63.7	43.2	6.4	미국	6.7	-4.8	7.2	26.5	3.6	7.3
6	필리핀	29.0	1.1	2.9	싱가포르	3.0	35.2	3.2	10.8	15.2	3.0
7	싱가포르	25.8	11.4	2.6	필리핀	2.5	5.3	2.7	10.0	14.3	2.8
8	말레이시아	13.5	3.3	1.3	말레이시아	1.2	-3.8	1.3	4.8	-0.2	1.3
9	일본	10.8	-16.9	1.1	일본	1.1	15.6	1.1	4.0	11.8	1.1
10	인도	10.7	-26.8	1.1	인도	0.9	2,333.6	0.9	4.7	51.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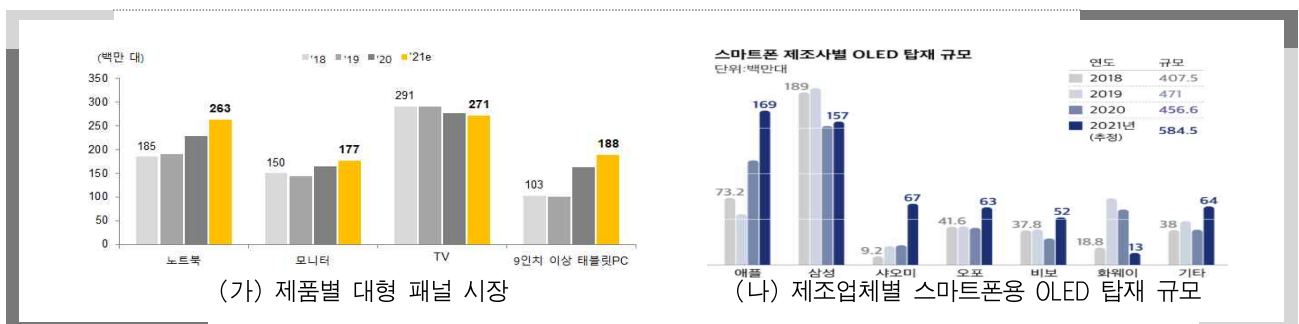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전방 산업의 OLED 패널 탑재 비중 확대에 따라 글로벌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 주목

- (시장 전망) 대형 패널은 IT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 중소형은 OLED 패널 성장에 눈길
 - (대형 패널) '21년 대형 패널 시장(9억 4,430만 대, 7%↑)은 모니터(7%↑), 노트북PC(15%↑), 태블릿PC(16%↑) 등 IT 제품 판매 호조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OMDIA, '21.4월)
 - (중소형 패널) 삼성전자·애플에 이어 中 스마트폰 업체들까지 OLED 패널 채용을 확대하면서 '21년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5억 8,500만 대, 26.0%↑)은 두 자릿수 대로 성장 전망
 - 한편 中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중국 패널 업체들이 매섭게 추격하며 '21년 15%→'22년 27%까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
 - ※ '21년→'22년 글로벌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 점유율 전망(출하량 기준, %): 삼성디스플레이(77→65), LG디스플레이(8→7), BOE(6→13), TCL-CSOT(2→6), 티엔마(1→4) 등(연합뉴스, 5.23일, 원소스, OMDIA)
 - 이처럼 中 패널 업체들이 후발주자로 OLED 패널 생산에 뛰어들에 따라 OLED 패널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중저가형 스마트폰에도 OLED 패널을 채택하는 등 수요처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 자연스럽게 '22년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8억 1,200만 대, 38.8%↑)도 상승 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1분기 실적)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發 전방 수요 호조로 양호한 실적 관측
 - (삼성디스플레이) 비록 대형 패널은 LCD 사업 재편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소형 패널에서 스마트폰용 OLED 채용이 증가하면서 매출액 6.92조 원(5%↑), 영업이익 0.36조 원을 기록
 - (LG디스플레이) 채택근무,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으로 IT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1분기 매출액(BS부문, 1.86조 원, 9.1%↑)은 성장, 영업이익도 0.13조 원을 기록

그림 1-4 제품별 대형 패널 시장 및 제조업체별 스마트폰용 OLED 탑재 규모



자료 : OMDIA, 2021.4. / 조선일보, 5.6. (원소스 OMDIA)

□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5.17~21일)에 참가한 국내 업체들은 차별화된 OLED 제품 및 기술을 대거 공개

- (삼성디스플레이) ‘Better life through Samsung OLED’를 주제로 가상 전시관을 개관
 -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기술을 적용한 총 4가지 제품을 공개. 먼저 안과 밖으로 두 번 접을 수 있는 멀티 폴더블 ‘S-폴더블’에 이어 4:3 비율로 접을 경우 태블릿PC로, 완전히 펼쳤을 때는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면 ‘17형 폴더블’을 공개
 - 또한 기존 스마트폰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더블’, 전면 카메라를 패널 아래에 장착해 화면을 극대화한 풀스크린 기술 ‘UPC(Under Panel Camera)’ 등 선도적인 OLED 기술력을 선보여 업계 이목이 집중
-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가상 전시관을 개관
 - 발광 효율을 20% 이상 향상시킨 ‘83인치 차세대 OLED TV 패널’을 공개해 대형 OLED 기술력 우위를 선보인 데 이어 별도의 스피커 없이 화면에서 직접 소리를 내는 ‘CSO(Cinematic Sound OLED)’, 벤더블, 롤러블, 투명, AR용 OLEDs(OLED On Silicon) 등도 공개해 눈길
 - ※ 특히 CSO와 벤더블 기술을 접목해 제작한 ‘48인치 벤더블 CSO’는 몰입감과 생동감이 극대화돼 최적의 게이밍 패널로 주목
 - 또한 동 사의 독보적인 차량용 P-OLED 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T자 형태로 4개의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연결)와 12.8인치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을 전시하며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향후 방향성도 제시
-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 신제품 ‘아이폰13’용 OLED 수주에도 성공
 - 아이폰 프로 모델 6.7인치, 6.1인치에 탑재되는 플렉시블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사로 선정된 데 이어 일반 모델 6.1인치, 5.4인치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D가 함께 공급기로 협의
 - ※ 중국 BOE는 ‘아이폰13’용 패널 공급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관측돼 국내 업체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 번 확인

그림 1-5 |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기술 이미지



(가) S-폴더블



(나) 17인치 폴더블



(다) 슬라이더블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2) 수출 동향

□ '21.4월 패널 수출은 OLED 호조세 등으로 35.1% 증가한 16.7억 달러로 집계

- **(품목별)** LCD 패널 반등과 OLED·부분품 수출 호조로 8개월 연속 성장 곡선 유지
 - (LCD 패널 : 5.0억 달러, 13.1%↑) LCD 패널 가격 상승, 전방(TV 등) 수요 증가, 공급망 회복,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LCD 패널 수출은 상승 전환
 - (OLED 패널 : 8.4억 달러, 57.5%↑) 스마트폰·노트북 등의 OLED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OLED 패널 수출은 '17.10월(72.4%↑)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
 - (패널 부분품 : 3.3억 달러, 26.0%↑) 편광판(2.4억 달러, 39.0%↑) 등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패널 부분품 수출은 11개월 연속 오름세 유지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베트남·미국 등의 수출 성장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대 상승 기록
 - 중국(홍콩 포함, 8.8억 달러, 28.3%↑)은 LCD 패널(4.0억 달러, 19.7%↑), 부분품(2.3억 달러, 35.6%↑) 수출의 양호한 흐름과 OLED 패널(2.4억 달러, 37.1%↑)의 반등으로 크게 성장
 - 베트남(6.7억 달러, 46.7%↑)은 LCD 패널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스마트폰向 수요 증가에 따른 OLED 패널(5.7억 달러, 71.4%↑) 수출 급등으로 전체 수출 성장률이 50%에 육박
 - ※ 인도(0.2억 달러, 391.2%↑) 역시 OLED 수출(3,473.5%↑)이 눈에 띄게 증가해 눈길
 - 미국(0.2억 달러, 50.1%↑)은 OLED 패널(0.03억 달러, 63.0%↑)과 부분품(0.1억 달러, 48.2%↑) 수출 반등으로 반짝 상승

표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4	5	6	7	8	9	10	11	12	'21.1	2	3	4
패널	12.4 (△28.0)	12.8 (△21.1)	15.0 (△5.3)	15.5 (△21.1)	18.1 (△16.9)	21.1 (2.7)	21.2 (10.6)	21.8 (27.7)	23.9 (31.2)	20.7 (32.1)	16.2 (22.2)	16.9 (2.9)	16.7 (35.1)
LCD	4.4 (△37.4)	4.5 (△36.4)	4.9 (△26.2)	5.5 (△23.4)	5.2 (△22.7)	5.5 (△3.5)	5.3 (△7.9)	5.4 (2.4)	6.1 (12.8)	5.3 (10.5)	4.5 (4.6)	4.9 (△8.5)	5.0 (13.1)
OLED	5.4 (△25.2)	5.9 (△4.1)	6.9 (13.4)	6.4 (△28.9)	9.5 (△18.9)	12.2 (3.3)	12.8 (22.7)	13.4 (46.3)	14.4 (46.0)	12.2 (52.1)	8.4 (32.9)	8.4 (8.5)	8.4 (57.5)
부분품	2.7 (△13.1)	2.4 (△20.5)	3.2 (2.8)	3.6 (3.7)	3.4 (2.5)	3.4 (11.8)	3.0 (3.6)	3.0 (13.4)	3.4 (15.4)	3.2 (12.3)	3.3 (25.7)	3.6 (8.7)	3.3 (26.0)

자료 : IITP, KTSPI

그림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4월 당월				1~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01.2	21.7	48.9	중국	8.5	30.7	50.9	32.3	19.0	45.8
2	중국	88.5	-18.8	42.7	베트남	6.7	46.7	39.8	32.2	32.1	45.6
3	홍콩	3.9	-18.8	1.9	홍콩	0.3	-14.2	1.9	1.4	5.7	2.0
4	미국	2.2	-3.4	1.1	미국	0.2	50.1	1.4	0.8	9.6	1.2
5	멕시코	2.0	-37.5	1.0	멕시코	0.2	35.4	1.3	0.7	13.9	1.0
6	일본	1.3	-47.4	0.6	인도	0.2	391.2	0.9	0.5	89.0	0.7
7	인도	0.7	-12.4	0.4	폴란드	0.1	-5.3	0.4	0.2	-5.0	0.3
8	폴란드	0.7	-67.0	0.4	대만	0.1	4.5	0.3	0.2	-19.5	0.3
9	대만	0.7	-24.6	0.3	일본	0.1	-48.6	0.3	0.3	-48.9	0.4
10	헝가리	0.6	3.5	0.3	헝가리	0.0	3.1	0.2	0.2	13.6	0.3

자료 : IITP, KTSPI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21.1분기 스마트폰 시장, 세계 전역에서 크게 반등한 가운데 경쟁구도 변화에 주목

- (전세계) '21.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5,200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28.1% 증가하며 '15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달성(SA, '21.5월)
 - 올 1분기 시장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 시장 회복,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5G 스마트폰 공급 확대 등이 맞물리며 30% 가까이 성장하는 호조세를 기록했으며 '20.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지속
 - 다만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신흥 시장 인도 등의 현지 시장 축소와 함께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 등이 우려되면서 2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일상화로 데스크톱·노트북·태블릿 등 PC 및 TV向 반도체의 강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차량용 시장에서도 반도체 확보 경쟁이 발생하면서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부품 조달 차질로 완만한 성장을 예측
- (지역별) 코로나19 회복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 중동/아프리카(38%↑) 및 아시아/태평양(30%↑) 등은 3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은 중국(8,620만 대, 24%↑)·인도(3,880만 대, 26%↑) 등이 견인
 - 서유럽(29%↑)·중남미(25%↑) 등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한 북미(17%↑) 시장도 10% 후반대의 호조세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 모든 지역 시장에서 회복세가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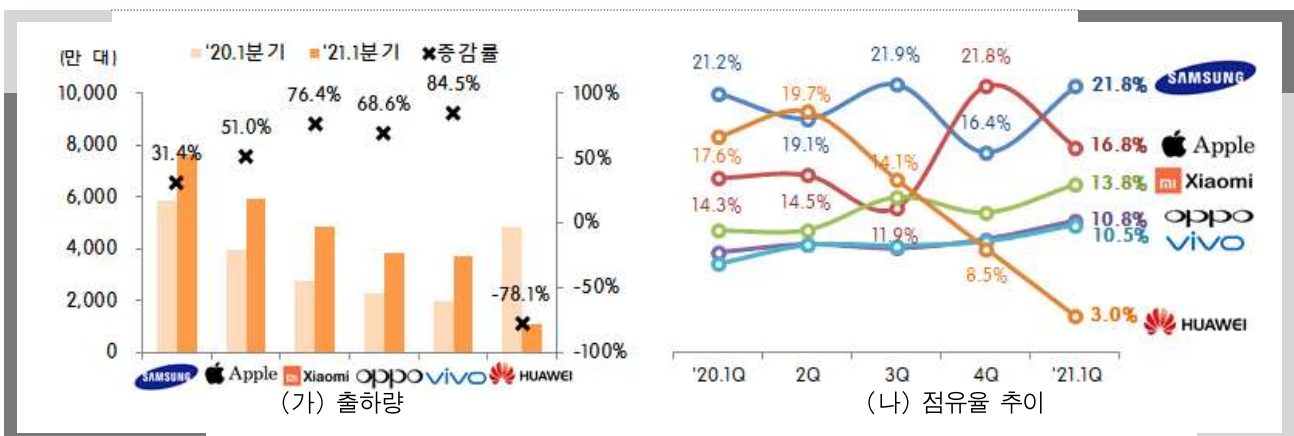
그림 1-7 | 전세계 및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 SA, 2021.5.

- **(업체별)** 시장 회복에 따라 상위 5개 업체들은 성장세로 반등한 가운데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축소에 따른 삼성전자 1위 탈환, 중국 업체 고속 성장 등 입지 변화에 주목
 - (삼성전자) 중저가 ‘갤럭시A 시리즈’ 및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21 시리즈’ 등의 선전으로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회복하며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7,660만 대를 출하, 시장점유율 21.8%를 차지하며 애플로부터 1위를 탈환
 - ※ 한편 삼성전자는 전체 시장 선두를 차지했으나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 오포, 비보에 이어 4위를 차지
 - (애플) 점유율 16.8%로 삼성전자에 선두를 내주며 시장 2위로 한 단계 하락. 그러나 첫 출시된 5G 모델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한 높은 수요가 북미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5,920만 대를 출하(51%↑),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15.1분기 6,120만 대) 판매량을 기록
 - ※ ‘20.10월 출시된 ‘아이폰12 시리즈’는 ‘21.1분기 4,0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며 자사 물량의 68%를 차지
 - 한편 2분기부터는 공급 제약과 출시 주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은 4,000만 대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샤오미) 인도 시장 선두 유지 및 중국·서유럽 등 화웨이가 선전하던 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76% 증가한 4,850만 대를 출하, 3분기 연속 3위 자리를 유지. 시장 점유율도 ‘20.1분기 10%→’21.1분기 13.8%로 확대
 - (오포) 중국과 인도에서의 견조한 실적과 서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큰 진전에 힘입어 3,810만 대(69%↑)의 스마트폰을 출하, 10.8%의 시장점유율로 4위를 차지
 - (비보)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인도 시장에서의 견조한 실적 달성으로 시장 점유율 10.5%로 5위를 차지. 특히 3,690만 대를 출하하며 증감률 85%로 상위 업체중 가장 높은 성장세 달성
 - (화웨이) 미국 제재 조치, ‘21.3월 아너(점유율 1.8%)와의 분할 완료 등에 따라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축소되면서 시장 9위로 하락. 시장 점유율도 ‘20.1분기 17.6%→’21.1분기 3.0%로 추락

그림 1-8 전 세계 스마트폰 주요 업체별 출하량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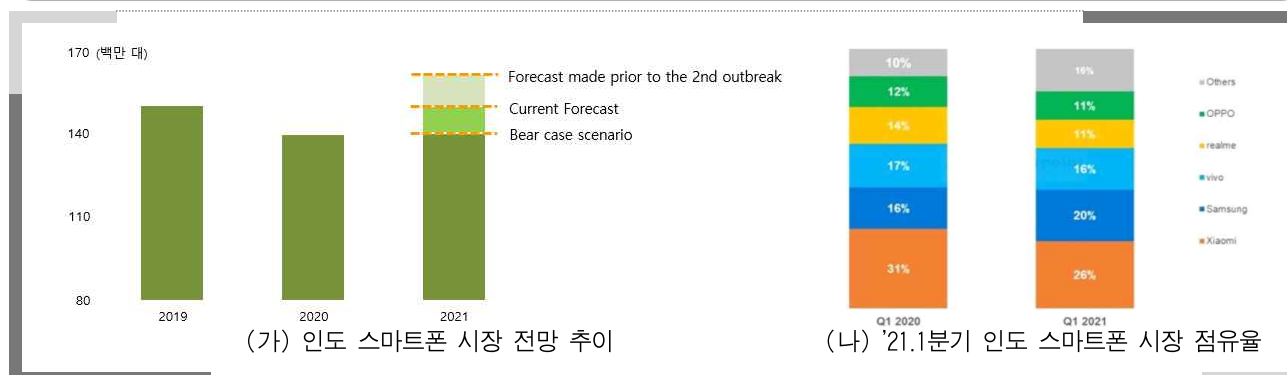


자료 : SA, 2021.5.

□ 인도, 코로나19 발생 생산 중단·소비 위축 등으로 현지 및 글로벌 시장 위축에 큰 영향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부 주(州)의 봉쇄령 조치 등으로 소비 시장이 위축되며 현지 스마트폰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 세계 시장 성장률에도 영향
 - 인도에서 하루 40만 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현지 코로나19 감염자의 급속한 재확산을 배경으로 마하라슈트라주·타밀나두주 등 일부 지방 정부가 봉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의 운송이 금지되는 등 공급망 뿐만 아니라 시장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 코로나19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등 일부 기관에서는 인도 지방 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 봉쇄령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
 - 이에 따라 인도 스마트폰 생산량이 감소('21.2~3분기 약 1,200만 대 축소)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 7.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인도 출하량 축소 전망에 따라 '21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9.4%에서 8.5%로 하향 조정(트렌트포스, '21.5월)
- 생산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스마트폰 업체의 인도 생산 라인이 일시 중단되거나 축소 가동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사태 장기화 시 매출 감소도 우려
 - 최근 애플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의 인도 타밀나두주 공장에서 1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5월 말까지 해당 공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약 50% 감소할 전망
 - '20년엔 노키아와 오포도 생산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도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오포·비보 등은 이미 일부 스마트폰 생산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전
 -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가동률이 30~4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지 시장 위축에 따라 유통·판매에도 피해가 우려
 - ※ 한편 '21.1분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3,800만 대로 샤오미(26%)·삼성전자(20%)·비보(16%)·리얼미(11%)·오포(11%) 등이 상위권을 차지(카운터포인트리서치, '21.4월)
 - 이번 인도 시장의 위축으로 시장 1위인 샤오미의 2분기 매출액이 약 3% 감소하고, 전체 생산량 가운데 45%를 인도 시장에서 출하하고 있는 리얼미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IDC, '21.5월)

그림 1-9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전망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트렌트포스, 2021.5.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1.4.

2) 수출 동향

□ 완제품과 부분품 동반 성장으로 전년 동월대비 89.7% 증가한 12.4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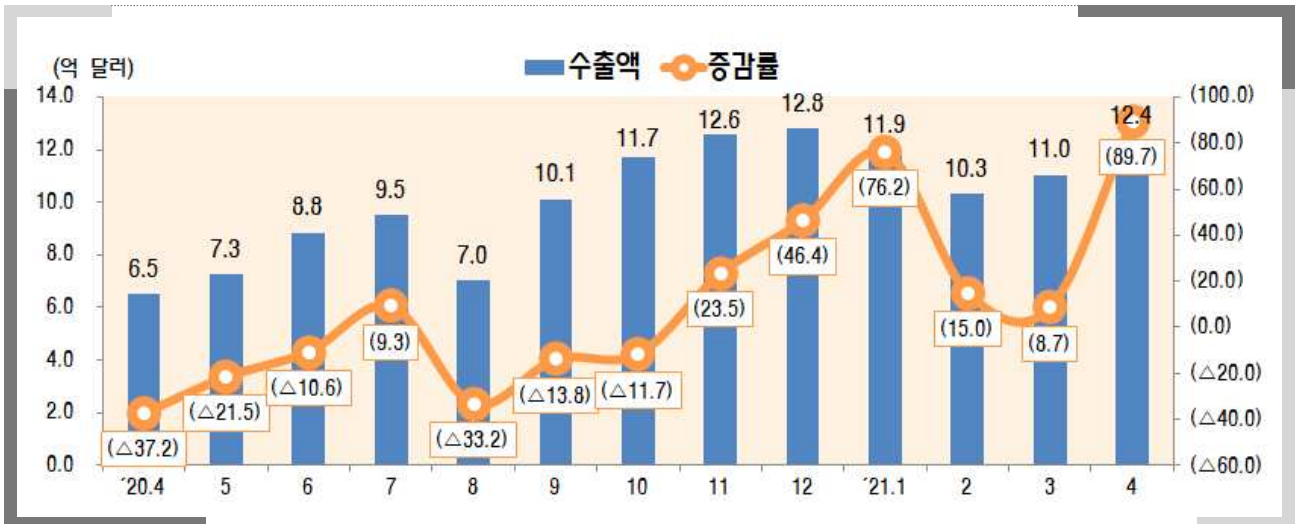
- (품목별) '21.4월 휴대폰 수출은 카메라모듈 등 부분품 호조세 지속과 더불어 완제품이 반등하면서 '20.11월 이후 6개월 연속 성장세를 달성
 - (휴대폰 완제품 : 5.7억 달러, 89.4%↑)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다시 성장세로 반등했으며 '19.4월(5.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대 실적을 달성
 - (휴대폰 부분품 : 6.7억 달러, 89.9%↑) 글로벌 업체向 부품 공급 확대 등 해외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증가로 카메라 모듈, PBA 모듈, RFIC 등 수출이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3.4억 달러, 145.0%↑), 베트남(2.3억 달러, 59.6%↑), 브라질(0.03억 달러, △39.1%)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베트남 등 주요 생산거점 및 미국·EU 등 완제품 시장에서 증가
 - 중국(홍콩 포함, 3.6억 달러, 114.5%↑)은 완제품(△33.6%) 수출이 감소했으나 현지 및 글로벌 업체向 공급 증가로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145.0%↑)이 크게 늘어나면서 8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 미국(3.0억 달러, 79.1%↑)은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증가 등으로 완제품(93.0%↑)과 부분품(62.8%↑) 모두 성장세를 달성하면서 전체 휴대단말기 수출은 호조세로 반등
 - 베트남(2.3억 달러, 58.7%↑)은 완제품(△4.0%)이 감소했으나 RFIC, 카메라모듈, PBA 모듈 등 부분품(59.6%↑)이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로 회복
 - EU(1.9억 달러, 115.1%↑)는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수출 증가 등으로 완제품(109.8%↑) 수출 호조와 더불어 부분품(155.2%↑)이 동반 성장하면서 세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 지속

표 1-7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4	5	6	7	8	9	10	11	12	'21.1	2	3	4
휴대 단말기	6.5 (△37.2)	7.3 (△21.5)	8.8 (△10.6)	9.5 (9.3)	7.0 (△33.2)	10.1 (△13.8)	11.7 (△11.7)	12.6 (23.5)	12.8 (46.4)	11.9 (76.2)	10.3 (15.0)	11.0 (8.7)	12.4 (89.7)
완제품	3.0 (△43.6)	3.4 (△15.4)	3.7 (△24.4)	3.8 (20.6)	2.0 (△39.8)	3.3 (32.6)	3.7 (△16.8)	4.0 (16.8)	3.1 (△11.3)	3.8 (87.4)	4.3 (5.2)	4.4 (△9.6)	5.7 (89.4)
부분품	3.5 (△30.5)	3.8 (△26.2)	5.2 (2.7)	5.7 (2.7)	5.1 (△30.3)	6.9 (△26.1)	8.0 (△9.2)	8.6 (26.9)	9.7 (85.1)	8.1 (71.4)	6.0 (23.3)	6.7 (25.4)	6.7 (89.9)

자료 : IITP, KTSPI

그림 1-10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8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4월 당월				1~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31.9	15.9	28.4	중국	3.3	120.2	26.9	13.6	111.2	29.7
2	중국	29.1	7.0	25.9	미국	3.0	79.1	24.2	9.3	-6.3	20.4
3	미국	25.0	-30.4	22.2	베트남	2.3	58.7	19.0	9.7	8.0	21.2
4	영국	3.9	218.5	3.5	독일	0.5	91.9	4.2	1.8	171.4	4.0
5	홍콩	3.8	8.8	3.3	영국	0.5	6.4	3.8	2.0	221.9	4.3
6	독일	2.7	-7.8	2.4	오스트리아	0.3	1,563.3	2.7	0.6	393.0	1.4
7	일본	2.0	18.2	1.8	홍콩	0.3	66.3	2.4	1.1	18.6	2.5
8	캐나다	1.9	-57.0	1.7	UAE	0.2	79.1	1.8	0.6	32.1	1.4
9	브라질	1.3	33.2	1.1	스웨덴	0.2	1,395.9	1.7	0.6	1,068.6	1.3
10	인도	1.1	25.9	1.0	싱가포르	0.2	215.9	1.5	0.2	-22.2	0.5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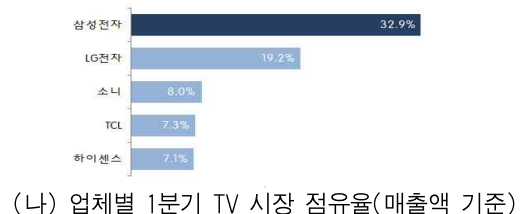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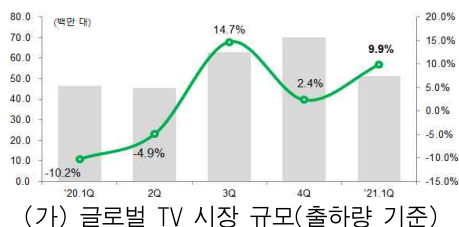
5 D-TV

1) 수출 환경

□ 1분기 글로벌 TV 시장, '20.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요 분출 효과가 지속되며 성장 기록

- (시장 규모) '21.1분기 TV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팽창하면서 견조세 관측
 - '20.3분기부터 수요 분출 효과(Pent-up effect)가 지속되면서 '21.1분기 글로벌 TV 시장은 출하량(5,123만 대, 9.9%↑)과 매출액(273.9억 달러, 32.8%↑)이 동반 상승하며 성장세 시현
 - ※ 특히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남에 따라 30%대를 상회하는 매출액 성장률에 눈길
 - (경쟁 현황) '21.1분기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매출액 기준, 32.9%)는 QLED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프리미엄 제품 판매 급증으로 역대 1분기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며 1위를 지속
 - 2위를 기록한 LG전자(19.2%)도 OLED TV(79.02만 대, 116%↑) 출하량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도 역대 분기 점유율 최대치를 달성해 눈길
 - ※ 한편 70인치 대 OLED TV(약 490만 원)가 LCD TV(약 140만 원) 평균판매가격 대비 3배 이상인 점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성장에 눈길
- (1분기 실적)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콕 문화 확산에 따른 TV 수요 증가로 선전
 - (삼성전자) 코로나19發 TV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21.1분기 CE부문 매출액은 12조 9,900억 원(26%↑), 영업이익 1조 1,200억 원을 기록
 - '21.3월 출시한 'Neo QLED TV'도 글로벌 TV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2분기는 'Neo QLED' 및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스포츠 이벤트 수요를 선점할 계획
 - (LG전자)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확대, TV 수요 회복 등으로 '21.1분기 HE 부문 매출액은 4조 82억 원(34.9%↑), 영업이익 4,083억 원을 기록하며 큰 폭 성장. 특히 영업이익은 11분기 만에 4,000억 원 대에 재진입해 눈길

그림 1-11 | 글로벌 TV 시장 규모(출하량 기준) 및 업체별 1분기 TV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자료 : 조선비즈, 5.25. (원소스 OMDIA) / 한국경제, 5.25. (원소스 OMDIA)



□ 글로벌 TV 시장, 한·중 양강 구도 정착 가속

- 日 TV 제조업체, 사업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중소형 TV 생산을 중국 업체에 위탁
 - (파나소닉) TV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 사는 부진 탈피를 위해 수익성 낮은 중소형 TV 생산을 中 최대 TV 제조업체인 TCL에 업무 제휴를 통해 위탁할 계획('21.5월 협의 중인 상황)
 - ※ '10년 기준으로 일본 업체인 소니(3위, 10.3%), 파나소닉(4위, 7.9%), 샤프(5위, 6.7%), 후나이전기(10위, 2.6%) 등이 글로벌 10위 안에 들었으나 '20년 Top10에 포함된 일본 기업은 소니(6위, 3.9%)가 유일(OMDIA)
 - '15년 중단한 북미·중국 공장에 이어 '21년 내로 인도·베트남 공장의 TV 생산 가동도 중단할 방침. 말레이시아, 체코 등 해외 공장 7곳의 생산 체제도 개선해 현재 600만 대의 자체 생산 규모를 '24년까지 350만 대로 최대 40%가량 감축할 계획
 - ※ 다만 고부가 기종인 대형 LCD TV, OLED TV, 고가의 중형 TV 일부 등은 자체 생산을 지속할 예정
 - 또한 일본 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TV 생산 공장 우쓰노미야 공장(도치기현)도 OLED TV 등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 다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꾀할 방침
- '21.2분기 미니 LE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LG전자·TCL 간 본격 대전 예고
 - (삼성전자) '21.3월 출시한 'Neo QLED TV'를 중심으로 미니 LED TV 경쟁 전선에 적극 참여
 - (LG전자) '21.4월 출시 예정이었던 동 사의 미니 LED TV 'LG QNED'가 2개월 연장된 '21.6월 글로벌 출시될 전망.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의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출시 일정이 다소 연기된 것으로 분석
 - ※ 이와 동시에 '21.3월 출시한 'OLED evo'도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 대세화에도 주력할 방침
 - (TCL) 중국 최대 TV 업체인 동 사는 최근 온라인 행사를 통해 미니 LED TV 신제품 'C82'를 공개(4.20일). '21.2분기 내로 55·66인치 4K 제품을 영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선보일 계획
 - ※ 이외에 지난해 TV 시장에 처음 진출한 中 OPPO는 첫 TV 시리즈('S1'과 'R1')에 이어 43·55·65인치 세 종류로 구성된 스마트 TV 'K9'를 정식 공개(5.6일). 中 TV 시장은 모바일 업체들의 전선 합류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표 1-9 각 사 미니 LED TV 특징

종류	주요 특징
 <삼성전자 'Neo QLED TV'>	- 기존 백라이트 LED 소자 1/40 크기인 미니 LED 사용 - 미니 LED 밝기 4,096 단계로 조정 - 16개 신경망 인공지능(AI)로 저화질 영상도 4K·8K 화질에 최적화
 <LG전자 'QNED TV'>	- 기존 LCD TV 대비 소자 크기 1/40 미만 미니 LED 적용 - 3만 개 미니 LED 탑재(86인치 8K 해상도 기준) - 화면분할구동(로컬디밍) 구역 2,500개 - 기존 LCD TV 대비 색재현율 10배 향상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2) 수출 동향

□ '21.4월 TV 수출은 17개월 만에 부진을 딛고 59.1%로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부분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TV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해 주목
 - (LCD TV : 0.03억 달러, $\Delta 88.0\%$) 미국($27.9\% \uparrow$) 등으로의 수출은 4개월 연속 오름세이나 인도($\Delta 79.7\%$)·일본($\Delta 98.9\%$)·대만($\Delta 89.4\%$) 등이 하락하면서 감소
 - (OLED TV : 0.02억 달러, $\Delta 84.3\%$) 폴란드($\Delta 31.0\%$), 일본($\Delta 96.3\%$), 사우디아라비아($\Delta 82.1\%$) 등 주요 수출국의 하락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
 - (부분품 : 1.0억 달러, $196.3\% \uparrow$) TV 수요 급증, 기저효과, 국내 업체의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19.11월 이후부터 지속된 부진을 탈피하고 세 자릿수 대의 고성장세로 반등해 눈길
- **(지역별)** 주요 교역국(멕시코·폴란드·베트남 등) 수출이 세 자릿수 대로 큰 폭 성장
 - 멕시코(0.4억 달러, $570.7\% \uparrow$)는 LCD TV 수출($129.0\% \uparrow$)의 반등과 더불어 부분품(0.4억 달러, $570.9\% \uparrow$)이 크게 성장하면서 3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유럽向 주요 생산 거점인 폴란드(0.2억 달러, $576.9\% \uparrow$)는 부분품(0.2억 달러, $657.0\% \uparrow$)을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2개월 연속 성장 기록
 - 베트남(0.1억 달러, $65.9\% \uparrow$)은 LCD TV($95.1\% \uparrow$), OLED TV($430.6\% \uparrow$), 부분품($65.7\% \uparrow$) 등 전 품목 수출이 반등하며 1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해 주목
 -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은 인도네시아(0.04억 달러, $811.5\% \uparrow$)는 부분품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고성장 지속

표 1-10 D-TV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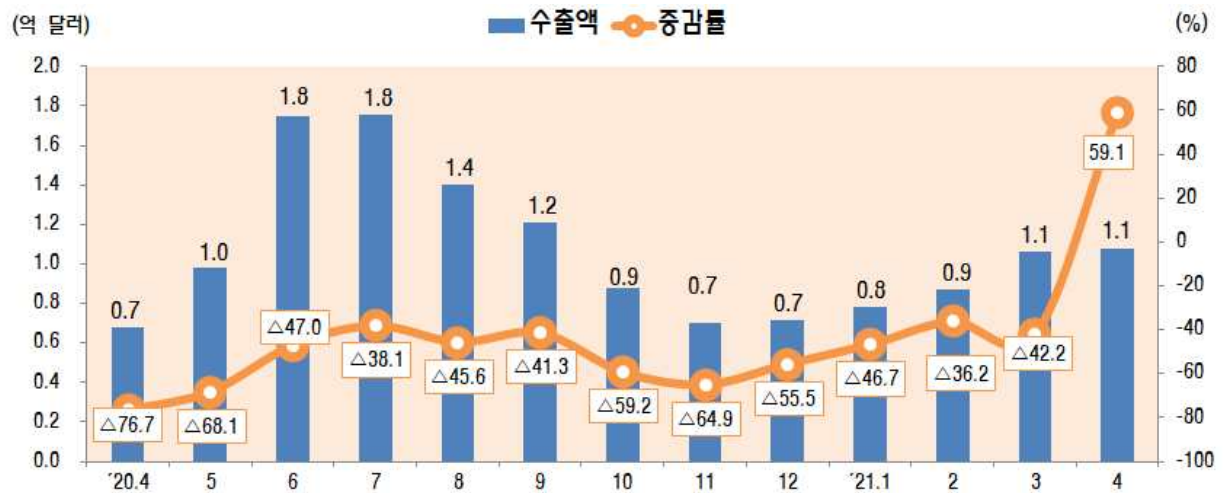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4	5	6	7	8	9	10	11	12	'21.1	2	3	4
D-TV	0.7 ($\Delta 76.7$)	1.0 ($\Delta 68.1$)	1.8 ($\Delta 47.0$)	1.8 ($\Delta 38.1$)	1.4 ($\Delta 45.6$)	1.2 ($\Delta 41.3$)	0.9 ($\Delta 59.2$)	0.7 ($\Delta 64.9$)	0.7 ($\Delta 55.5$)	0.8 ($\Delta 46.7$)	0.9 ($\Delta 36.2$)	1.1 ($\Delta 42.2$)	1.1 (59.1)
LCD TV	0.2 ($\Delta 50.9$)	0.2 ($\Delta 49.9$)	0.3 ($\Delta 12.0$)	0.2 ($\Delta 37.7$)	0.1 ($\Delta 62.3$)	0.0 ($\Delta 94.4$)	0.0 ($\Delta 91.2$)	0.0 ($\Delta 95.5$)	0.0 ($\Delta 95.3$)	0.0 ($\Delta 93.3$)	0.0 ($\Delta 93.0$)	0.0 ($\Delta 93.4$)	0.0 ($\Delta 88.0$)
OLED TV	0.1 (17.2)	0.1 ($\Delta 13.0$)	0.1 (116.5)	0.1 (87.3)	0.1 (4.3)	0.1 ($\Delta 2.9$)	0.1 (10.3)	0.0 ($\Delta 74.7$)	0.0 ($\Delta 79.7$)	0.0 ($\Delta 92.9$)	0.0 ($\Delta 89.9$)	0.0 ($\Delta 89.1$)	0.0 ($\Delta 84.3$)
부분품	0.3 ($\Delta 85.3$)	0.7 ($\Delta 72.3$)	1.4 ($\Delta 53.7$)	1.4 ($\Delta 41.6$)	1.2 ($\Delta 44.8$)	1.1 ($\Delta 33.0$)	0.7 ($\Delta 59.0$)	0.7 ($\Delta 59.8$)	0.7 ($\Delta 48.4$)	0.8 ($\Delta 28.0$)	0.8 ($\Delta 13.6$)	1.0 ($\Delta 24.3$)	1.0 (196.3)

자료 : IITP, KTSPI



그림 1-12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4월 당월				1~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3.4	-60.7	22.9	멕시코	0.4	570.7	41.6	1.5	51.6	38.2
2	베트남	1.7	-48.8	11.2	폴란드	0.2	576.9	17.7	0.6	107.6	16.5
3	폴란드	1.4	26.0	9.5	베트남	0.1	65.9	12.2	0.4	-39.0	10.0
4	브라질	1.0	-56.5	7.1	이집트	0.0	211.6	4.3	0.1	-47.1	3.7
5	이집트	0.7	-53.4	4.6	브라질	0.0	48.4	4.1	0.2	-16.1	6.5
6	UAE	0.6	-17.9	4.4	미국	0.0	26.5	3.4	0.2	-11.5	4.1
7	일본	0.5	-25.6	3.7	인도네시아	0.0	811.5	3.3	0.2	117.4	4.0
8	인도	0.5	-8.6	3.4	남아프리카	0.0	13,411.2	1.9	0.1	36.2	1.8
9	인도네시아	0.5	6.7	3.1	홍콩	0.0	-61.7	1.8	0.0	-71.8	1.0
10	홍콩	0.4	-31.2	3.0	러시아연방	0.0	55.9	1.7	0.1	-18.4	2.4

자료 : IITP, KTSPi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수출 환경

□ 1분기 PC 시장,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4분기 연속 상승 지속

- (시장 규모) '21.1분기 PC 시장(8,398만 대, 55.2%↑)은 두 자릿수 성장(IDC, '21.4월)
 - '21.1분기 PC 시장은 공급망 정상화,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등의 비대면 PC 수요 지속,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무려 55%를 상회하는 큰 폭의 성장세 관측
 - ※ 시장조사기관 Gartner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아니었다면 1분기 PC 출하량이 한층 더 폭증했을 것이라 추정
 - 또한 전 분기('20.4Q)와 비교해 보았을 때 '21.1분기 감소폭은 8%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12.1분기('11.4Q 대비 △7.5%) 이후 9년 만에 (전년 4분기 대비 1분기) 최저 하락폭으로 눈길
 - ※ 1분기는 통상 계절적 비수기로 전 분기(전년 4분기)와 비교할 때 출하량이 대체적으로 크게 하락. 일례로 '19.1분기 PC 출하량은 '18.4분기 대비 △13.7%로 두 자릿수 감소
- (경쟁 현황) '21.1분기 주요 업체들의 출하량이 모두 증가, 특히 Apple의 급성장에 눈길
 - Lenovo(2,040만 대, 59.1%↑)와 HP(1,924만 대, 64.1%↑)는 비대면 PC 수요 확대에 따라 50%대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각각 24.3%, 22.9%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
 - ※ Lenovo는 '20.3분기 1위를 탈환한 이후 3분기 연속 1위를 지속
 - Dell(1,295만 대, 23.4%↑)은 출하량이 늘어났으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4.0%p 하락한 15.4%에 그치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 주요 PC 업체들 중 유일하게 점유율이 감소
 - Apple(669만 대, 111.5%↑)과 Acer(584만 대, 73.5%↑)는 7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며 8.0%, 7.0%의 점유율로 각각 4, 5위에 랭크. 특히 Apple의 세 자릿수 성장에 눈길

그림 1-13 분기별 글로벌 PC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IDC, 2021.4.



- **(업체 동향)** 글로벌 업체들은 PC 시장의 상승 기류에 발맞춰 노트북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
 - (Acer) ‘AMD 라이젠 7’ CPU와 엔비디아 RTX 3060·3070 시리즈 그래픽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니트로 5’를 출시(5.3일)
 - (ASUS) OLED를 탑재한 프리미엄 노트북(‘젠북 프로 듀오 15 OLED’, ‘젠북 13 OLED’)을 출시(5.4일). ‘젠북 프로 듀오 15 OLED’는 인텔 10세대 코어 H 시리즈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 그래픽을 탑재했으며 해상도는 4K UHD를 지원
 - ‘젠북 13 OLED’는 풀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3인치 OLED 노트북으로 인텔 11세대 코어 i7 CPU를 탑재했으며 1.14kg의 가벼운 무게와 13.9mm의 얇은 두께로 구성
 - (삼성전자) 4.28일 처음으로 노트북 부문 단독 언팩 행사(‘삼성 갤럭시 언팩 2021’)를 개최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프리미엄 노트북 신제품 2종을 공개
 - ‘갤럭시 북 프로’,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1세대 CPU,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했으며 ‘인텔 이보(Evo)’ 인증도 받은 제품. 무게도 868g으로 역대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가벼워 주목
 - 특히 ‘갤럭시 북 프로 360’은 손이나 펜을 통한 입력이 가능하며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하거나 텐트처럼 세워 인터넷 강의 수강 등으로 활용. 해당 제품은 5.14일 글로벌 출시
 - 한편 인텔이 데스크톱에 이어 노트북용 11세대 CPU ‘타이거레이크 H45’를 출시(5.12일)하면서 향후 PC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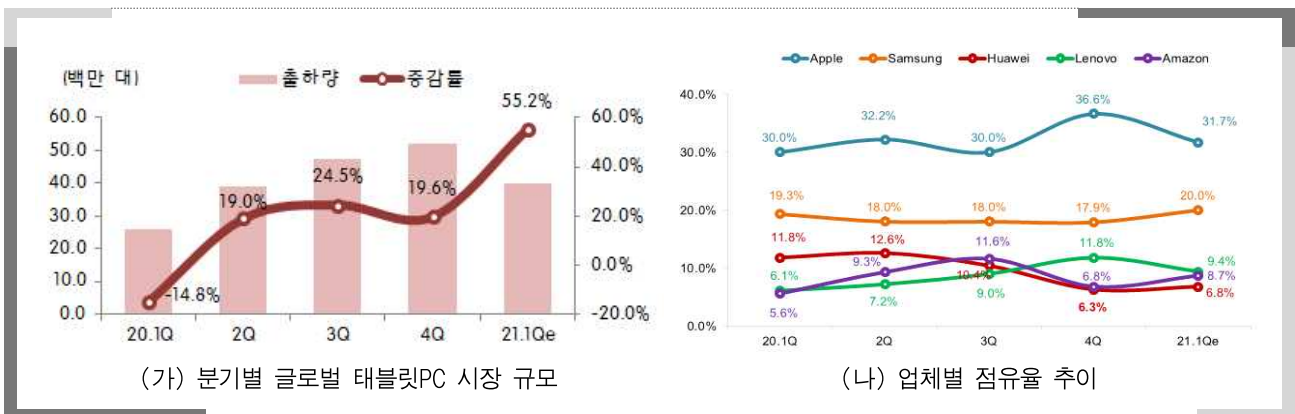
□ (태블릿PC) 1분기 태블릿PC 시장은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의 일상화로 호조세 지속

- **(시장 규모)** ’21.1분기 태블릿PC 시장(3,990만 대, 55.2%↑)은 상승 가도(IDC, ’21.4월)
 - 키보드와 모니터가 분리되는 디태처블 제품을 중심으로 호황이 지속되면서 ’21.1분기 태블릿PC 출하량은 5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4,000만 대에 육박한 것으로 관측
 - **(경쟁 현황)** ’21.1분기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에서 Apple(1,270만 대, 64.3%↑)은 아이패드 시리즈 판매 호조 등으로 31.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유지. 삼성전자(800만 대, 60.8%↑)는 20.0%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
 - Lenovo(380만 대, 138.1%↑)와 Amazon(350만 대, 143.0%↑)은 세 자릿수 대의 높은 성장률로 전년 동기대비 순위가 1단계씩 올라 각각 3위(9.4%), 4위(8.7%)에 랭크
 - 다만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20.11월 ‘honor’ 사업을 매각한 Huawei(270만 대, 1.7%↑, honor 사업 부문 제외)는 타 경쟁 업체들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성장을 보이며 5위를 기록
 - ※ 한편 Huawei의 태블릿PC 출하량에 honor 사업을 포함할 경우 ’21.1분기 성장률은 △9.2%로 역성장
- **(업체 동향)**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에 맞서 삼성전자는 보급형 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격

차별화 전략으로 애플의 시장 독주를 저지할 계획

- 애플은 4.20일 공개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삼성전자는 보급형 제품 ‘갤럭시탭A7·S7 라이트(’21.6월 출시 예정)’를 올해 주력 제품으로 내세워 각축전을 벌일 전망
- 한편 삼성전자는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폴더블 기술 강점을 활용해 ’22년 초 화면을 두 번 접는 더블 폴딩 방식의 ‘갤럭시Z폴드 탭’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

그림 1-14 분기별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IDC, 2021.4.

□ (SSD) 지난해의 폭발적 성장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대의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시장 전망)** ’21년 SSD 시장은 10.5% 증가한 4억 328만 대 규모에 이를 전망(IDC, ’20.12월)
 -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의 데이터 사용이 폭증함에 따라 소비자용(3억 3,689만 대, 11.2%↑)·기업용(5,130만 대, 6.1%↑) SSD 수요 강세가 지속되면서 SSD 시장은 호황 전망
- **(업체 동향)**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위한 기업용 SSD 신제품 출시 및 양산에 초점
 - (삼성전자) SAS2)-4 표준을 지원하며 6세대 V낸드를 적용하여 업계 최고 성능을 구현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SSD ‘PM1653’을 출시(4.27일)
 - 해당 제품은 800GB에서 최대 30.72TB까지 용량이 다양하며 임의읽기 성능은 업계 최고 수준인 80만 IOPS(초당 입출력 횟수)를 지원. 연속 읽기도 이전 제품 대비 2배 향상된 4,300MB/s를 제공
 - (SK하이닉스) 풀HD급 영화를 단 1초 만에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 데이터 센터용 SSD ‘PE8110 E1.S’ 양산에 돌입(4.15일)
 - 해당 제품은 128단 4D 낸드가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용량은 8TB로 구성. 이전 세대인 96단 제품 대비 읽기 및 쓰기 속도가 각각 최대 88%, 83% 향상된 점이 특징

2) SAS(Serial Attached SCSI·시리얼 부착 SCSI)는 서버나 대형 컴퓨터의 스토리지 장치에 쓰이는 고속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



2) 수출 동향

□ '21.4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3.9% 증가한 11.2억 달러로 집계

- **(품목별)**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등의 양호한 실적으로 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상승 지속
 - (컴퓨터 : 1.6억 달러, 8.8%↑) 소형 컴퓨터(0.2억 달러, 36.8%↑), 중대형 컴퓨터(0.1억 달러, 39.9%↑), 부품(1.3억 달러, 3.5%↑) 등의 수출 호조로 성장세 유지
 - (주변기기 : 9.6억 달러, 3.1%↑) 주요 품목인 SSD는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반락한 반면 프린터(0.4억 달러, 16.7%↑), 모니터(0.5억 달러, 19.4%↑)가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변기기 수출 성장을 견인
- **(지역별)** 미국·멕시코 등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중국(홍콩 포함), 네덜란드 등) 수출은 상승
 - 중국(홍콩 포함, 4.2억 달러, 3.5%↑)은 SSD 수출(2.7억 달러, 0.1%↑) 반등과 컴퓨터 수출(1.2억 달러, 3.9%↑)의 도움으로 상승 기록
 - 미국(3.5억 달러, △3.7%)은 컴퓨터 수출(0.1억 달러, 27.5%↑)이 반짝 상승했으나 SSD 수출(2.7억 달러, △19.8%)이 기저효과 등으로 두 자릿수 대로 감소하며 하락 전환
 - 네덜란드(0.3억 달러, 66.4%↑)는 컴퓨터(223.5%↑), SSD 수출(0.3억 달러, 71.9%↑) 호조 등으로 18개월 연속 상승 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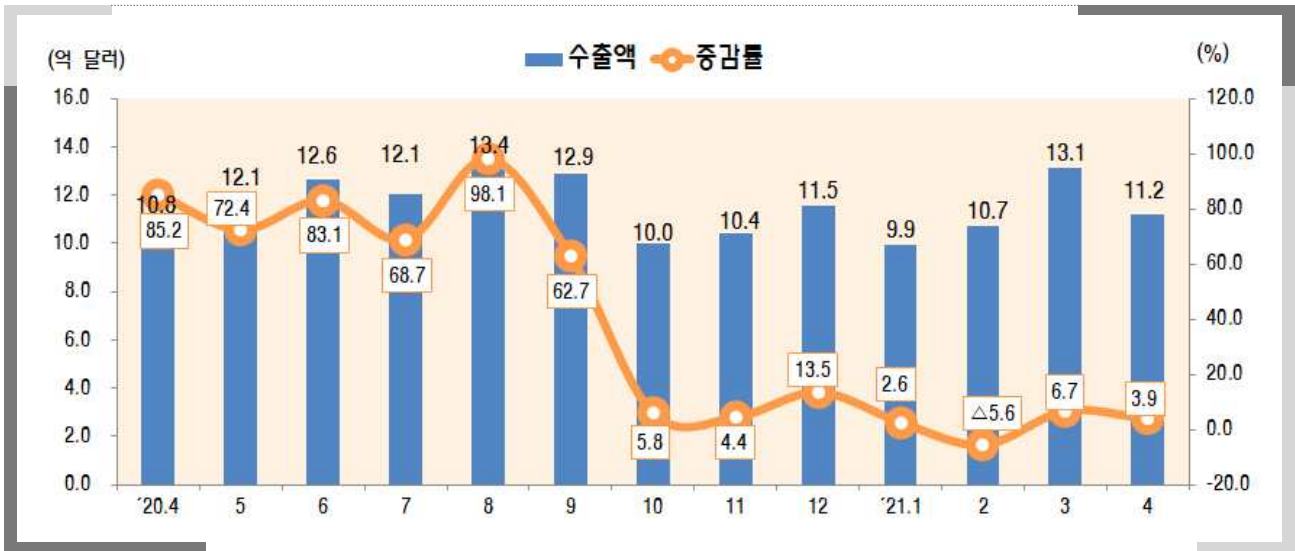
표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4	5	6	7	8	9	10	11	12	'21.1	2	3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8 (85.2)	12.1 (72.4)	12.6 (83.1)	12.1 (68.7)	13.4 (98.1)	12.9 (62.7)	10.0 (5.8)	10.4 (4.4)	11.5 (13.5)	9.9 (2.6)	10.7 (△5.6)	13.1 (6.7)	11.2 (3.9)
컴퓨터	1.5 (△6.5)	1.7 (0.2)	1.7 (13.2)	2.0 (16.4)	1.7 (19.5)	2.0 (30.0)	1.8 (12.0)	2.0 (25.8)	2.1 (19.8)	1.6 (23.4)	1.5 (16.6)	1.8 (21.4)	1.6 (8.8)
부품	1.3 (△1.5)	1.5 (5.4)	1.4 (23.0)	1.6 (19.1)	1.5 (24.9)	1.7 (48.9)	1.5 (11.5)	1.7 (34.8)	1.7 (37.3)	1.4 (25.9)	1.3 (23.4)	1.5 (36.2)	1.3 (3.5)
주변기기	9.3 (120.2)	10.4 (95.5)	10.9 (103.0)	10.1 (85.3)	11.6 (119.5)	10.9 (70.4)	8.2 (4.6)	8.4 (0.4)	9.4 (12.2)	8.3 (△0.7)	9.2 (△8.5)	11.3 (4.7)	9.6 (3.1)
보조기억 장치	8.3 (250.4)	9.6 (160.2)	9.7 (152.2)	8.4 (123.5)	10.2 (165.9)	9.5 (97.6)	6.8 (11.3)	6.9 (7.3)	8.0 (21.9)	7.0 (1.9)	7.8 (△6.1)	9.2 (7.6)	7.5 (△8.8)
프린터	0.3 (△8.7)	0.2 (△40.3)	0.3 (△14.3)	0.3 (△23.4)	0.3 (△12.3)	0.4 (4.8)	0.3 (1.1)	0.3 (△0.6)	0.3 (3.8)	0.3 (19.6)	0.3 (30.0)	0.4 (27.1)	0.4 (16.7)
모니터	0.4 (△54.6)	0.3 (△65.1)	0.3 (△54.9)	0.4 (△50.7)	0.4 (△45.0)	0.4 (△36.7)	0.4 (△47.0)	0.5 (△41.6)	0.5 (△32.7)	0.4 (△44.0)	0.5 (△28.3)	0.6 (△21.7)	0.5 (19.4)

자료 : IITP, KTSPi

그림 1-1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4월 당월				1~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5.3	95.8	32.6	미국	3.5	-3.7	31.5	13.1	-7.0	29.1
2	중국	41.1	28.6	29.6	중국	3.1	1.7	27.2	13.0	4.5	29.0
3	홍콩	12.5	77.9	9.0	홍콩	1.1	9.2	9.8	4.1	-5.7	9.0
4	일본	5.0	46.1	3.6	네덜란드	0.3	66.4	3.0	1.2	51.9	2.7
5	멕시코	3.5	54.3	2.5	일본	0.3	34.7	2.8	1.9	-17.5	4.2
6	대만	3.2	130.3	2.3	대만	0.3	1.1	2.6	1.5	57.4	3.4
7	네덜란드	3.0	47.2	2.1	멕시코	0.2	-12.6	2.2	1.5	43.8	3.4
8	독일	2.6	46.1	1.9	이라크	0.2	2,833,650.1	2.2	0.2	21,450.0	0.5
9	체코	2.3	211.6	1.7	체코	0.2	20.2	2.1	0.6	0.3	1.4
10	오스트리아	2.2	93.4	1.6	싱가포르	0.2	33.3	1.9	0.8	17.8	1.8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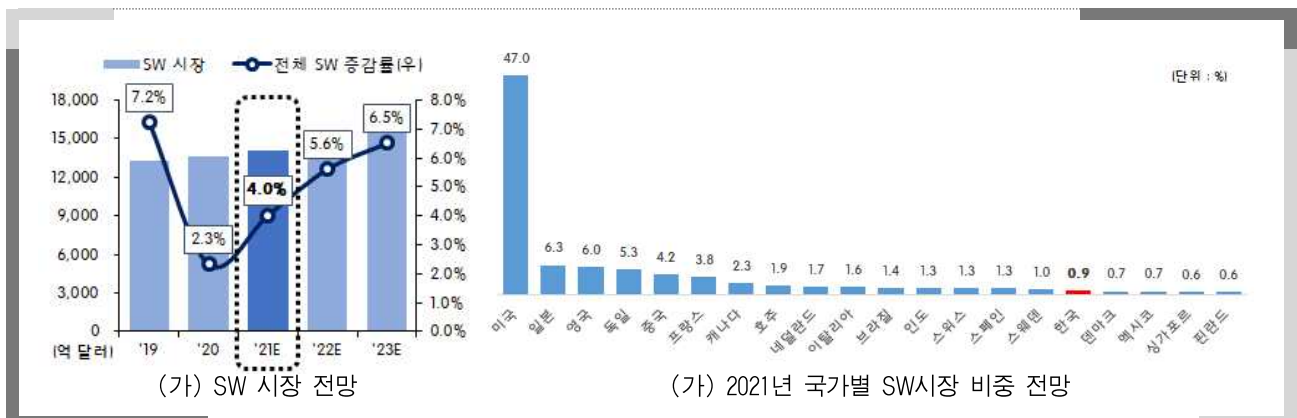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글로벌 SW 시장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및 신흥국 등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시장 전망) '21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비대면 관련 수요와 더불어 신규 시장 확산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1조 4,135억 달러로 증가폭 확대 전망(IDC, '21.4월)
 - (IT서비스 : 7,373억 달러, 3.0%↑)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신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패키지SW : 6,762억 달러, 4.0%↑)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환경 구축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필수 요소 및 클라우드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한편 사업과 업무 현장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IoT(사물인터넷)·VR(가상현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면서 관련 SW 시장 확대도 기대
- (국가별) 상위 20개 모든 국가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국의 성장세에 주목
 - 47.0%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SW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패키지SW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6,648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중국(5위, 증감률 13.2%↑)·브라질(11위, 8.6%↑)·인도(12위, 7.6%↑) 등 신흥국은 7% 이상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되며 특히 브라질·멕시코는 전년 대비 순위가 각각 1계단, 2계단씩 상승
 - 국내 SW 시장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3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나 세계 시장 내 비중은 0.9%, 상위 20개 국가 중 16위에 랭크될 것으로 분석

그림 1-16 전 세계 SW 시장 전망 및 국가별 비중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21.4.

□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디지털 전환 지원 플랫폼 및 관련 신규 서비스를 개발·제공

- 삼성SDS는 디지털 전환 진단 체험서비스를 제공, LG CNS는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출시, SK C&C는 협업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추진 등 클라우드·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며 시장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

표 1-14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디지털 전환(DT)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체험 서비스를 오픈('21.5.6일)하는 등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디지털 신기술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며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 -기업 진단, 업종별 진단(제조 부문), EX(Employee eXperience) 진단, 애자일 진단, IT 인프라 진단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DT 수준을 진단하고 간단한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험 서비스를 자사 홈페이지 '마이 트라이얼'에 공개, 이후 상세 진단 요청에 따라 전문가 맞춤형 분석을 진행 -이번에 공개한 5가지 분야 외에 클라우드·데이터 분석·보안·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수준 진단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된 디지털 전환 추진 방법론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SaaS)을 바탕으로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클라우드엑스퍼 프로옵스(CloudXper ProOps)' 출시를 통해 국내 기업 최초로 클라우드 '더 뉴 MSP3)' 사업에 진출('21.4.27일) ※'더 뉴 MSP'는 급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고객 클라우드 인프라·응용시스템·보안·전문가 서비스 등을 통합, 최적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사업 모델 -LG CNS는 클라우드엑스퍼 프로옵스를 기반으로 기존 MSP 영역에 △고객 특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조합 △클라우드 신기술 지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T신기술 적용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등을 더해 고객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향후에도 새로운 MSP 영역을 개척하고 클라우드 컨설팅, 전환을 포함해 클라우드 프로옵스로 특화된 운영까지 클라우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클라우드와 디지털 신사업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21.4.15일)하고 양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결합해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공공·금융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서비스 '뉴로클라우드'에 SK C&C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 '멀티버스'를 탑재해 국내의 높은 보안 요구를 수용하고 공공과 금융 사업 현장 곳곳에서 기존 시스템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고객 맞춤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 ※뉴로클라우드에 멀티버스를 탑재한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은 언제든지 사내 보안 정책을 수용하면서 사업 현장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설계·개발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양사는 빠른 공동 사업 발굴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공공·금융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버티컬) 디지털 혁신 플랫폼 팩' 개발에도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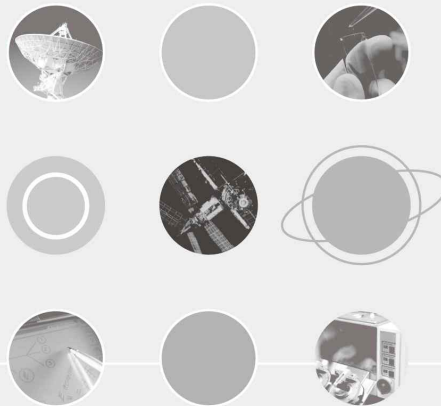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3) MSP(Managed Service Provider)는 클라우드 경험이 없는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고객사 시스템을 AWS·MS·GCP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클라우드로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운영 서비스를 제공



II

트레이드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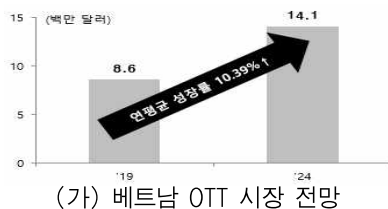
II 트레이드 GPS⁴⁾

1 베트남 - 음향기기

□ 홈 엔터테인먼트 시대 개화에 따른 OTT 서비스 확대 배경으로 음향기기 성장성에 주목

- 베트남은 비대면 문화 일상화로 영상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 특히 OTT 시장 발전에 눈길
 -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인터넷 인구 증가, 스마트 TV 보급 확대, 스마트폰 및 노트북 등 전자기기 보편화 등이 맞물리면서 영상 콘텐츠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시장
 - ※ '19년 아/태 지역 Youtube 사용자 이용시간 조사 결과 베트남은 Top5 안에 랭크(KOCCA, '20.5월)
 - 최근 인터넷 속도 개선, GDP 성장 등으로 OTT(Over The Top) 시청 수단 및 유통 콘텐츠 (Netflix 등) 접근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베트남 OTT 시장 규모는 '19년 8,6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4년(연평균 성장률 10.39%) 1억 4,1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KOTRA, '20.12월)
 -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가에 대한 갈망이 집안으로도 스며 들면서 베트남의 홈 엔터테인먼트 문화(홈 시네마, 게임 등) 확대도 OTT 시장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관측
 - ※ 베트남의 홈 엔터테인먼트 內 게임 콘솔 분야(닌텐도 스위치(59%↑), XBOX(40%↑) 등)에서 '20.2월 대비 3월 판매량이 급증(KOTRA, '20.5월)
 - 이에 따라 OTT 영상 콘텐츠 소비를 위한 스마트 TV, 콘솔 기기, 빔 프로젝터 등의 기기 수요가 증가, 이와 연관된 음향기기(프리미엄 무선 스피커, 사운드 바 등)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 '19년 베트남 TV 시장 규모는 273.9억 달러(6.1%↑), TV 보급률은 53%에 불과해 향후 TV 시장 성장이 유망(KOTRA, '20.5월)
 - 최근 음향기기 종류(무선 이어폰, 무선 헤드폰, AI 스피커 등)도 다양해짐에 따라 베트남 음향기기 시장 성장성이 더욱 유망
- 또한 글로벌 비대면 문화 기조에 따른 음향기기 수요 확대로 글로벌 대표 생산 기지의 한 곳인 베트남은 음향기기 부품품 주요 수출국으로도 주목받는 시장

그림 2-1 | 베트남 OTT 시장 전망 및 주요 플랫폼 시장 점유율



플랫폼	하노이	다낭	호치민	껀터	4개도시
Youtube	86.5	98.4	86.0	97.2	87.4
Phimmoi.net	30.7	37.0	29.1	14.8	28.9
Zing TV	23.6	14.5	26.5	45.5	26.4
FPT Play	8.0	4.2	7.3	18.1	8.2

(나) 베트남 주요 플랫폼 시장 점유율(% , '19년 기준)

자료 : KOTRA, 2020.12. / KOCCA, 2020.5.

4)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참고) 글로벌 주요 음향기기 시장 전망

- (#1, 무선 이어폰) 스마트폰 이어폰 단자 제거 등으로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무선 이어폰은 올해 전년 대비 76.7% 증가한 5억 3,000만 대가 출하될 전망. 또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약 13억 대)에 비해 무선 이어폰 출하량이 아직 약 1/4 수준에 불과해 잠재수요도 다분한 것으로 관측(SA)
 - ※ 특히 애플의 '시리', 삼성전자의 '빅스비'처럼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무선 이어폰 시장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도 관측
- (#2, 무선 스피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홈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개화하면서 음악·영화 감상, 게임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스피커 수요가 증가
 - ※ '21년 글로벌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1억 4,980만 대(17.0%↑)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전망(IDC, '21.2월)
- 고품질 음악 감상을 위한 블루투스(Wireless) 스피커, TV와 연동하여 고음질로 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사운드 바,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 (#3, 기타) 완제품 형식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가전제품 등으로도 음향기기 적용이 확산되며 기술력 제고에 따라 음향기기 시장 저변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업체들은 영상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음향기기 성능 향상에 매진,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페어링 등) 및 인공지능(AI) 접목 등으로 수요처 확대에 집중

○ (글로벌 업체) 음악·영상 감상을 위한 음질 개선과 더불어 기기와의 연결성에도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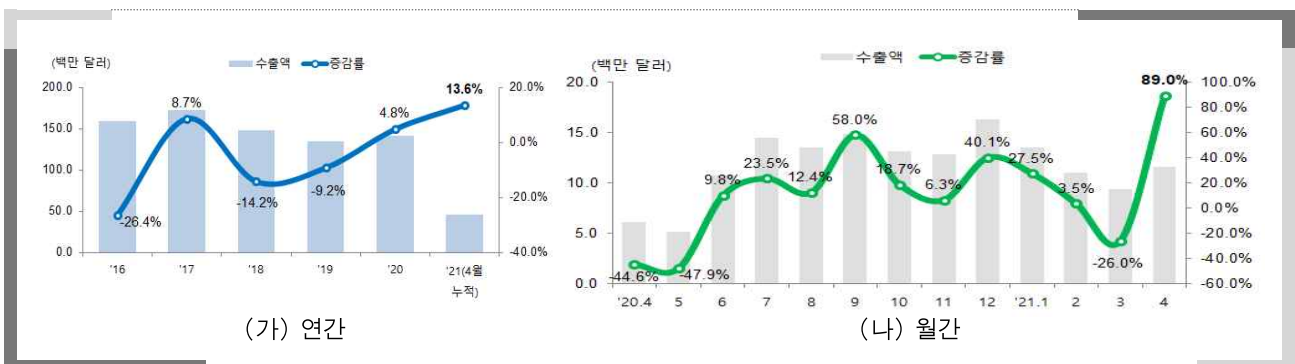
- (애플) '20.10월, 애플 기기와의 연동성이 매우 높은 인공지능(AI) 스피커 '홈팟 미니' 출시. 시리(Siri)를 통한 가정 내 기기 제어는 물론 사용자 취향에 맞는 음악 및 팟캐스트 등을 자동으로 추천
 - ※ 시리를 통한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소등, 온도 조절, 문 잠금, 간접 조명 설정 등의 제어가 가능
- 또한 애플이 설계한 어쿠스틱 도파관을 채용해 소리가 스피커의 바닥을 통해 흘러 360도 몰입형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며 애플 S5 칩을 탑재해 음악 특색에 맞는 최적의 음질도 출력
- 이어 '20.12월 첫 번째 무선 헤드폰 '에어팟 맥스(Airpods Max)'를 출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함께 40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적용해 베이스가 깊고 중대역 음질 정확도가 뛰어나며 고음도 선명토록 제작돼 사운드 감상 최적화에 모든 초점을 맞춘 기기로 주목
- 참고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脫중국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동 사는 생산라인 다각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베트남에서의 오디오 기기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
 - ※ 동 사는 '20년부터 베트남에서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일부 조립을 시작한 데 이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음성인식 스피커 '홈팟 미니'의 생산량도 늘릴 예정
- (소니) '20.8월 무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H-1000XM4'를 출시. 2개의 블루투스 기기를 동시에 페어링할 수 있어 노트북에 연동하여 사용 중 전화가 올 경우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가능

- 또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대화 여부에 따라 음악을 자동으로 일시 정지 및 재생시켜주는 ‘스마트 토크’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가 대화할 때마다 번거롭게 헤드폰을 벗지 않아도 되는 장점 보유
- ’21.1월에는 공간 전체를 아우르며 공간 내 어디에 있든 동일하고 입체감 있는 소리를 제공하는 SRS-RA 시리즈(‘SRS-RA5000’, ‘SRS-RA3000’) 스피커를 출시. 구글 어시스턴트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며 와이파이 연결만으로도 고음질 음악 감상이 가능
- 공연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아티스트의 음악을 감상하는 듯한 ‘360 리얼리티 오디오’와 반사음을 내장 마이크로 분석해 장소에 맞게 사운드를 최적화해 주는 기능도 더해진 점이 특징
- **(샤오미)** 글로벌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중저가 라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동 사는 ’20.9월 ‘Mi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2 Basic’과 ‘Mi TWS Basic 2’ 제품 2종을 출시
- 특히 ‘Mi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2 Basic’은 에어팟 2세대 기능과 비슷한 수준이며 귀에서 이어폰을 뺄 경우 음악이 정지되는 ‘스마트 인 이어’ 기능도 보유
 - ※ 다만 자동(Auto) 페어링 등의 기능은 샤오미 폰에서만 작동하고 타사폰은 초기에 한 번의 연결 과정이 필요
- **(젠하이저)** 코로나19 여파로 홈 시네마 장비 등을 가정 내에 구축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온라인 콘서트·뮤지컬·영화 등에서 뛰어난 공간감을 제공하는 오픈형 헤드폰 ‘HD560S’를 출시(’20.10월)
- **(국내 업체)** 무선 이어폰 및 사운드 바 시장 경쟁이 치열, 투자 등을 통한 수요처 확대에도 총력
 - ※ 글로벌 사운드 바 시장은 ’20년 400만 대 규모에서 ’21년 5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조선일보, ’20.11.16일)
 - **(삼성전자)** 애플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20년 ‘갤럭시 버즈 플러스 및 라이브’를 출시. 이어 ’21.1월 ‘갤럭시 버즈 프로’까지 출시하며 프리미엄 경쟁력 확보에 집중
 - 뿐만 아니라 홈시어터 시장 성장에 따른 스피커 증가 수요를 겨냥해 ’20.7월 프리미엄 사운드 바 ‘Q 시리즈’ 신제품 2종을 공개하며 음향기기 시장 진입로를 다각화해 나가는 행보 관측
 - 해당 제품은 TV와 사운드 바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해 주는 ‘Q-심포니’ 기능이 내장돼 넷플릭스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원음에 가깝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
 - **(LG전자)** 마찬가지로 ’20.7월 말 프리미엄 사운드 바 ‘갤러리 디자인 사운드 바’를 출시. 해당 제품은 타 제품보다 50%가량 얇으며 가장 얇은 부분이 19mm에 불과. 인공지능 사운드 기능도 탑재돼 스포츠 중계 등 영상 종류에 따라 맞춤형 소리를 제공
 - **(아남전자)** 스마트 오디오 등의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 3년 간 베트남 공장에 250억 원을 투자한 동 사는 생산 능력이 확대(2억 달러→4억 달러)되면서 ’20년 영업이익(122%↑)이 급증
 - ※ 업계에 따르면 ’17년을 기점으로 전통→스마트 오디오인 블루투스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사운드 바 등으로 시장 주류가 재편된 가운데 아남전자가 적시에 사업 전략을 변경해 이익을 누린 것으로 관측
 - **(에스텍)** 베트남 지역에 생산법인을 보유(’12년부터)하고 있는 동 사는 자동차, TV용 스피커와 스피커 부품 등이 주력 사업. 특히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라 고품질 오디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품 수주가 증가

□ (수출 동향) '21.4월 베트남 음향기기 수출은 89.0% 증가한 1,160만 달러를 시현

- 비대면 문화 일상화에 따른 헤드폰·마이크·스피커 등의 수요 확대와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차량용 마이크·스피커 등의 수요 증가로 베트남 음향기기 수출은 호조
- (연간) '17년 국내 세트업체의 베트남 백색 가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기타 음향기기 부분품을 중심으로 전체 수출이 반등. 다만 '18년 다시 하락하면서 2년 간 역성장을 기록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이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헤드폰, 마이크 등의 수요 증가로 반등. '21년(4월 누적, 4,548만 대, 13.6%↑)도 두 자릿수 대로 성장하며 상승세 지속
- (월간) '21.4월 수출은 전년 기저효과, 마이크·스피커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 성장. 라디오, 기타 음향기기의 고성장세와 음향 액세서리, 부분품의 반짝 성장으로 80% 대를 상회하는 성장률 달성
- 특히 음향 액세서리 수출 비중이 '19.4월 7.2%→'21.4월 27.0%로 2년 간 19.8%p 확대돼 주목

그림 2-2 | 對베트남 음향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1 | 對베트남 음향기기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4	5	6	7	8	9	10	11	12	'21.1	2	3	4
음향기기	6.1 (△44.6)	5.1 (△47.9)	10.7 (98)	14.4 (23.5)	13.5 (12.4)	14.9 (58.0)	13.2 (18.7)	12.9 (6.3)	16.3 (40.1)	13.5 (27.5)	11.0 (3.5)	9.4 (△26.0)	11.6 (89.0)
라디오	0.0 (△93.6)	0.0 (△97.9)	0.0 (△87.4)	0.0 (△23.4)	0.1 (43.1)	0.1 (15.7)	0.1 (76.0)	0.1 (24.1)	0.1 (174.5)	0.1 (4,894.5)	0.1 (6,104.0)	0.1 (18,206.8)	0.2 (4,413.9)
음향 액세서리	0.7 (△8.9)	0.6 (△51.3)	1.6 (43.3)	1.5 (4.3)	1.8 (△34.2)	2.0 (53.4)	1.4 (△17.6)	1.8 (2.3)	1.5 (△24.9)	2.6 (138.4)	2.0 (22.0)	1.5 (△20.8)	3.1 (330.5)
기타 음향기기	0.3 (△85.6)	0.4 (△24.5)	0.3 (△52.8)	0.4 (△28.9)	0.3 (△76.7)	0.7 (160.0)	1.1 (74.0)	0.7 (△56.0)	4.4 (549.8)	1.2 (△11.2)	3.1 (1,222.6)	1.7 (1,556.9)	2.6 (633.9)
기타 음향기기 부분품	5.1 (△35.0)	4.1 (△48.9)	8.8 (10.2)	12.4 (29.9)	11.3 (43.4)	12.0 (55.1)	10.6 (21.8)	10.2 (18.6)	10.2 (14.8)	9.6 (17.8)	5.7 (△34.0)	6.1 (△43.3)	5.7 (12.7)

자료 : IITP, KTSPI

2 네트워크 장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환경 변화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5G 수요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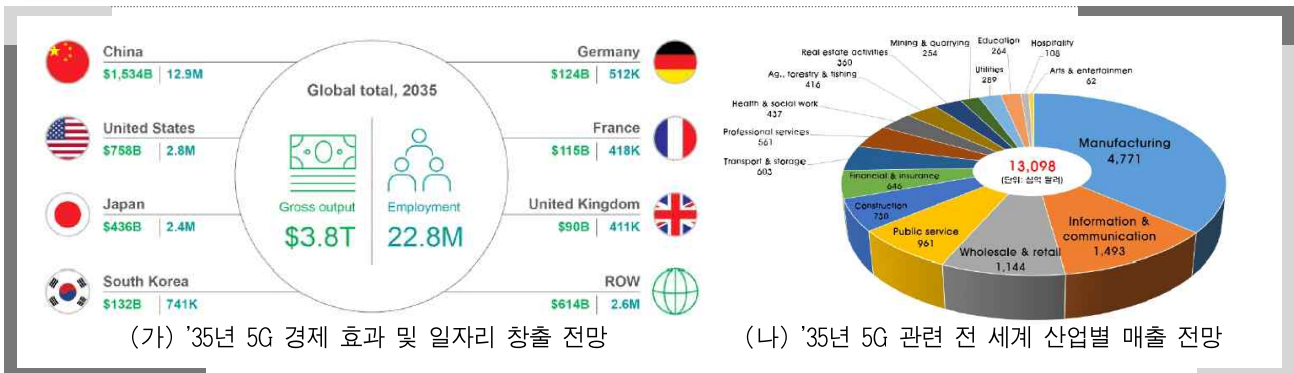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교육, 경제, 산업, 보건 및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 차세대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
 -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원격학습, 원격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이 확대되면서 영상회의 등이 급증. 영상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5G 수요 증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AR/VR 기술 접목 시 5G 네트워크가 필수적
 - 또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동영상 미디어 서비스(OTT) 및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기반 콘텐츠 소비가 증가. 특히 동영상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비 확대로 5G 기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 ※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년 말 약 21EB(엑사바이트)/월에서 매년 4.5% 증가해 '26년 226EB/월로 늘어날 전망. 이 중 동영상 비중은 '20년 66%→'26년 7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에릭슨, '20.11월)
 - 한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오프라인 소비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대면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히 온라인 구매를 넘어 사회 전반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어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5G 수요를 추가 견인
 - 비대면 요구에 따라 향후 자율주행차 도입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 연결이 필수적인 자율주행차 확대에 따라 통신 서비스 산업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전망
 - ※ 셔틀 및 배송용 자율주행차 도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점차 일반적인 자율주행차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

□ 비대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경기회복 등을 위한 주요국의 5G 투자 정책이 활발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재택근무와 원격학습 등을 지원하며 5G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G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정책을 적극 전개
 -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수요에 따라 통신 서비스의 연결성 및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5G 지원 정책을 추진
 - 코로나19로 지연된 5G 투자 재개와 더불어 5G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시장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5G 이동통신 인프라 확산을 위한 직접 지원을 가속화하며 재택근무나 원격학습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이 없도록 통신 구축망 확산을 위한 정비 추진
 - ※ '35년 5G로 인한 전세계의 경제 효과는 3.8조 달러, 일자리 창출 2억 2,800만 명이며, 5G와 관련된 전산업 매출은 13조 98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KISTEP, '20.11월, 원소스 IHS마킷)



그림 2-3 | 2035년 5G 경제(일자리 창출) 효과 및 관련 산업별 매출 전망



자료 : KISTEP, 2020.11. (원소스 IHS마킷)

표 2-2 | 주요국의 5G 관련 정책

국가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4일 중국 정부는 5G 기지국 구축,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방향을 공식화했으며, 4.20일 중국의 신형 인프라의 범위를 정보 인프라(5G·AI·블록체인 등), 융합 인프라(스마트교통·스마트에너지 등), 혁신 인프라(과학기술, 과학교육 등)로 확대 발표 ※신형 인프라 중에서 정보 인프라 분야가 가장 강조되며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응용 확대가 인프라 구축의 핵심 -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이동통신사를 통해 '30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5G 인프라 서비스 투자 계획을 발표. 현재 80만 개 이상 구축된 5G 기지국을 '24년까지 전국 약 600만 개로 확대한다는 방침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25년에 5G 네트워크 건설 분야의 직접투자가 약 1조 7,000억 위안에 이르고 5G 응용 투자는 약 3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KDI, '20.9월) - 이는 5G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 회복은 물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적 요소로 둔화되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행보로 분석 • 중국 정부는 5G 상용화 초기에 할당된 2.6GHz, 4.9GHz 대역에 이어 '20. 하반기 차이나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CBN)에 700MHz 대역을 추가 할당하며 5G 보급 속도를 확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최대 규모의 낙찰이 진행된 5G 중저대역(3.7~3.98GHz) 주파수 경매가 종료('21.2월)되면서 향후 미국 이동통신사의 대대적인 망 구축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5G 중저대역(3.7~3.98GHz) 280MHz 폭의 총 5,584개 주파수 라이선스 경매를 진행하며 총 809억 달러의 낙찰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 ※미국 이동통신사 경매 결과(투입액, 확보 라이선스 수) : (버라이즌) 455억 달러, 3,511개, (AT&T) 234억 달러, 1,621개, (T모바일) 93억 달러, 142개 • '21.3월 바이든 행정부는 8년간 2조 달러를 인프라 투자에 투입한다는 골자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계획에 따르면 '교통 인프라 확충'·'주택 인프라 구축'·'제조업 지원·연구 개발'·'5G 통신망 구축'·'전력망 강화'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미국 경제 회복을 기대 - 특히 5G 통신망 구축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5G 장비 업체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교외 지역을 위한 5G 펀드' 계획을 의결하기 위해 행정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5G 펀드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일반서비스기금(USF) 등을 활용해 교외 지역 5G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 공제를 통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5G 등 통신망 정비 확대를 통한 일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성은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5G 신규망 구축 사업자 대상으로 15% 규모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 기술 활용 시스템개발 공급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21.2월 발의 - 이보다 앞서 총무성은 제조공장과 통신회사에 예산을 지원해 산업용 로봇에 5G를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 하고,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등 분야를 지원하는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강화 - 또한 총무성은 5G 확대를 위해 '20.6.17일, '23년도까지 5G 기지국 수를 기존의 3배인 21만 개 이상으로 확대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5G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총력 - 한편 일본 4개 통신사(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라쿠텐모바일)는 5G 서비스에 향후 5년간 약 17조 3,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LTE의 5G 전환비용까지 약 32조 5,2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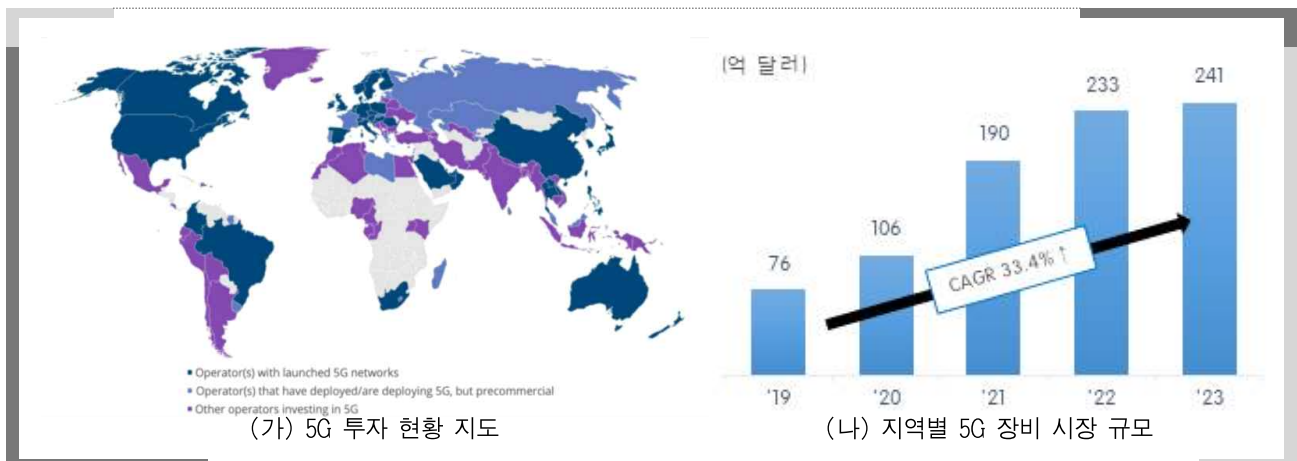
□ 비대면 환경 변화와 주요국 5G 투자가 맞물리면서 5G 서비스 및 장비 시장은 확대 전망

- **(5G 서비스)** 글로벌 5G 서비스 시장은 '21년 약 466억 달러에서 연평균 46.2%씩 성장해 '28년에는 6,6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Grand View Research, '21.3월)

□ 전 세계 5G 투자 현황(유진투자증권, '20.11월, 원소스 GSA)

- 글로벌 5G 투자 및 상용 서비스가 진행된 가운데 가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
 - '20.11월 전세계 129개 국의 407개 사업자가 5G에 대한 시험 및 라이선스 취득을 마치거나, 사업계획 발표 및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이 중 49개국, 122개 사업자가 5G 서비스를 시작
 - ※ 47개국, 115개 사업자는 5G 모바일 서비스, 23개국, 40개 사업자는 5G FWA/홈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시작
 - 그러나 '20.7월 기준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태국·홍콩·한국·미국 등)만이 5G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Opensignal). 아직은 5G 서비스의 가용성 및 다운로드 속도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
- **(5G 장비)** 주요국의 5G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온라인 소비 심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으로 전 세계 5G 장비 시장은 증가가 기대(텔오로, '20.10월)
 - 글로벌 5G 장비 매출 전망은 '19년 76억 달러에서 연평균 33.4% 증가하면서 '23년에는 24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특히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지연과 비대면 산업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가 각국의 투자 정책과 맞물리면서 79.2% 증가한 190억 달러 규모가 예상

그림 2-4 5G 투자 현황 지도 및 지역별 5G 장비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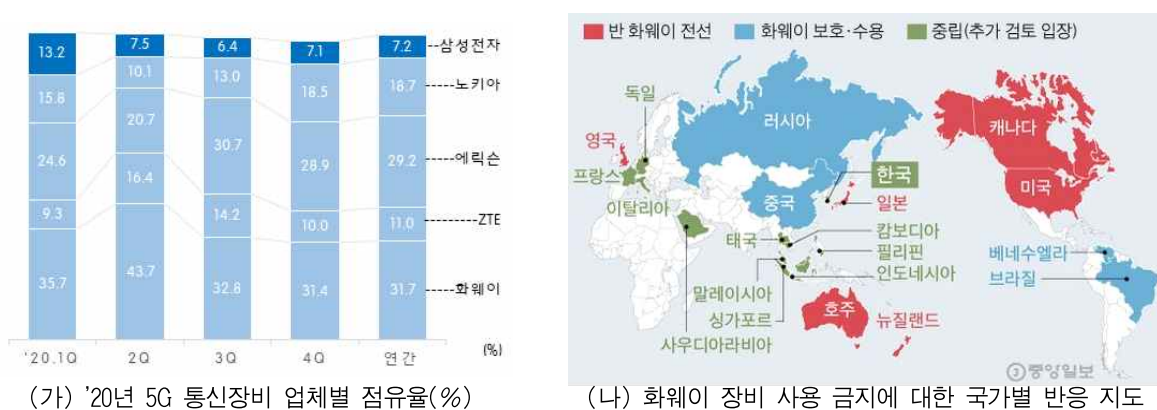


자료 : 유진투자증권, 2020.11.(원소스 GSA) / 텔오로, 2020.10.

□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공급 수주 경쟁은 가열

- **(업체별 점유율)** '20년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가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5위에 랭크(유진투자증권, '21.3월, 원소스 텔오르)
 - 화웨이는 '19년(32.6%)에 이어 지난해에도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31.7%로 1위를 수성. ZTE도 점유율 11%로 4위에 자리매김하면서 중국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
 - 에릭슨(29.2%), 노키아(18.7%)가 화웨이에 이어 2·3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20.1분기 13.2%에서 점차 축소돼 연간으로는 7.2%에 그치며 시장 5위를 기록
 - 한편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국에도 ‘클린 네트워크’⁵⁾에 참여할 것을 요구. 미국 및 이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이 금지되면서 삼성전자·에릭슨 등 타 네트워크 장비 기업에 반사이익이 기대
 - ※ 일각에서는 화웨이 제재의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의 '21년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전망
 - 또한 미 의회는 중국산 5G 기술을 사용한 국가에는 미군 부대나 군사장비 배치를 재검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20.12월)하면서 화웨이 입지는 더 위축될 전망
 - ※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의 전력을 외국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장비·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미 정부가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

그림 2-5 2020년 5G 통신장비 업체별 점유율 및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대한 국가별 반응 지도







자료 : 유진투자증권, 2021.3.(원소스, 텔오르) / 중앙일보, 2021.5.

- **(업체별 동향)**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주춤한 사이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등 주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는 보안 등을 바탕으로 5G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가운데 화웨이는 기술력에 따른 공급처 선정을 호소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

5)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20.8월 발표)으로 40개 이상 국가와 50개 이상 통신회사가 참여

표 2-3 주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별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캐나다 등 북미 및 일본 주요 통신사에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시장 공략에 총력 - '20.9월 미국 최대 이동사 버라이즌과 66억 4,000만 달러 규모의 5G 통신장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 - '21.3월에는 기존 통신망 구축 당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던 캐나다 이동통신사업자 사스크텔에 5G와 LTE 이동통신 기지국과 가상화 코어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결정 - 같은 달 일본 NTT도코모와도 장비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공급하게 되면서 전 세계 12개 이동통신사 업체에 5G 장비를 납품 - 한편 북미 시장에서의 5G 사업 강화를 위해 '21.1월, 미국 5G·4G LTE 망설계·최적화 전문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를 인수했으며, 국제 공통평가기준(CC) 획득 및 미국 국가정보보증협회(NIAP)의 보안 인증 제품(PCL), 캐나다 통신보안국(CSE) 인증 제품(CP) 목록에 등재되며 제품에 대한 보안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 확산으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5G 장비 계약이 증가하면서 '20.10.7일까지 5G 장비 계약 100건을 체결하는 등 최대 수혜기업으로 주목 - '20.10.9일 NATO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5G 통신망 공급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19일에는 NASA의 달 유인기지 4G·5G 통신망 공급업체로 선택. 또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로 손꼽히는 버라이즌과 AT&T는 최근 기업용 사설 5G 통신망 협력 사업자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7일까지 5G 장비 계약 112건을 체결 가장 많은 장비 계약을 수주 - 5G와 관련해 '18년부터 T모바일과 협력해 온 에릭슨은 '21.1월 노키아와 함께 T모바일에 5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 5G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5G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 - '20.3~4월 중국 통신사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의 5G 통신장비 수주에서 에릭슨은 외국계 기업 중 유일하게 전체 물량의 11%를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제재 강화로 글로벌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입지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웨이는 5G 이동통신 관련 보안 기술과 인증 이력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강조 - 5G 무선 기지국(5G RAN gNodeB), 5G 코어 네트워크 장비 등 자사 장비에 대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GSMA)와 3GPP가 공동 제정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체계 NESAS를 통과('20.12월)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치적인 시각이 아닌 기술력으로 평가해 줄 것을 강조 • 또한 '20.11.16일 영국에 5G 장비 도입 재검토 요청하며 유럽시장 진출을 재도전 - 화웨이는 5G 구축 사업에서 자사 장비구입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으며 아울러 영국이 자사의 장비를 배제할 경우 5G 통신망 구축 지연이 발생하고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동부와 북부 사이의 디지털 격차 및 불균형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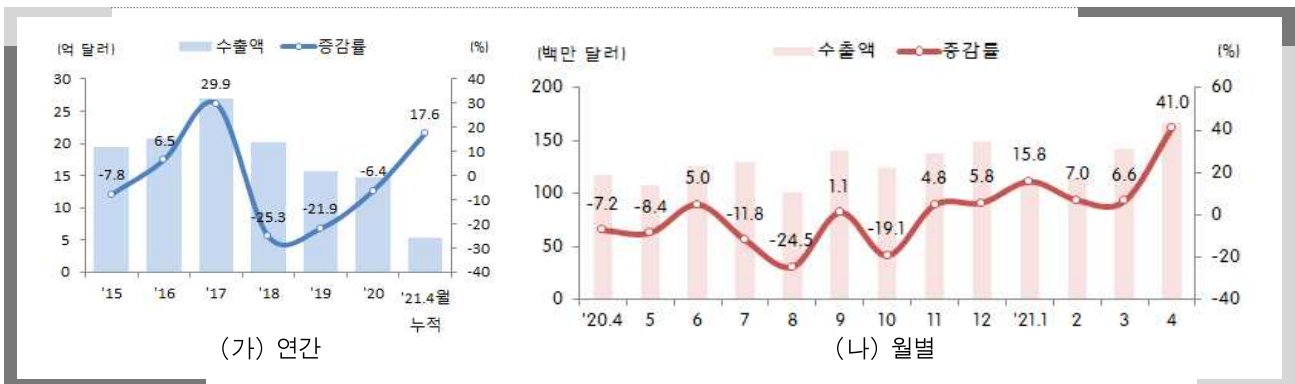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21.4월 네트워크 장비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1.0% 증가한 1.7억 달러를 기록

- 5G 서비스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고성능 네트워크 수요가 맞물리면서 네트워크 장비 수요는 반등하는 양상
 - (누적) LTE 등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투자가 둔화되면서 '18년~'20년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20년 하반기 이후 5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1.4월 누적 17.6%의 높은 성장세 기록
 - (월별)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경폐쇄, 소비 위축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면서 '20.10월까지 일부 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비대면 환경에 따른 수요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등이 맞물리며 '20.11월 이후 6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특히 '21.4월은 교환기가 하락했으나 전송기기,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무선통신시스템, 유·무선 통신기기 부분품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18.11월 이후 처음으로 1억 6,000만 달러대 호실적 달성



그림 2-6 연간 및 월별 네트워크 장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4 네트워크 장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4	5	6	7	8	9	10	11	12	'21.1	2	3	4
네트워크 장비	118.3 (△7.2)	108.6 (△8.4)	125.3 (5.0)	129.5 (△11.8)	101.9 (△24.5)	140.6 (1.1)	124.5 (△19.1)	138.5 (4.8)	148.6 (5.8)	113.5 (15.8)	114.9 (7.0)	141.9 (6.6)	166.8 (41.0)
전송기기	23.1 (66.6)	21.0 (18.8)	33.5 (45.4)	29.4 (33.1)	20.6 (△4.1)	29.9 (33.0)	22.0 (△22.5)	24.2 (△6.3)	32.4 (19.0)	15.5 (△14.3)	21.0 (49.3)	29.6 (78.0)	27.4 (18.7)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1.4 (△6.8)	1.5 (17.1)	1.5 (△0.6)	1.1 (41.3)	1.9 (130.0)	3.3 (254.0)	2.3 (35.8)	2.1 (49.8)	2.9 (29.7)	1.7 (7.2)	2.0 (△66.4)	2.8 (62.1)	2.3 (61.5)
교환기	0.9 (△0.8)	0.1 (△82.3)	0.3 (△9.5)	0.5 (△30.2)	0.3 (△66.1)	0.5 (△38.7)	0.1 (△79.5)	0.2 (△46.9)	1.2 (△15.7)	0.3 (△5.1)	0.6 (37.2)	0.4 (218.6)	0.3 (△67.1)
유선통신 기기 부분품	31.7 (△30.5)	27.9 (△34.7)	37.4 (0.1)	41.4 (△4.7)	39.5 (△0.5)	44.0 (12.5)	37.2 (△7.9)	40.9 (3.4)	44.8 (14.1)	31.6 (△6.6)	38.2 (8.7)	41.9 (△0.7)	43.8 (38.0)
무선통신 시스템	45.4 (△19.6)	49.6 (0.3)	44.7 (△6.3)	45.8 (△32.7)	33.9 (△46.7)	48.4 (△28.5)	44.2 (△40.3)	61.7 (6.5)	57.9 (9.2)	51.6 (36.4)	42.2 (△3.4)	54.2 (△15.4)	61.6 (35.7)
무선 통신기기 부분품	15.8 (75.0)	8.6 (24.2)	7.9 (△16.0)	11.3 (△3.3)	5.6 (△31.9)	14.4 (83.5)	18.7 (109.2)	9.4 (33.4)	9.4 (△45.9)	12.7 (103.1)	10.8 (34.9)	12.9 (55.3)	31.5 (98.9)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경제 분야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5.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코로나19 백신, 경제 협력 등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공식실무 방문 기간(5.19~22일)인 5.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동석한 가운데 171분간 논의
 - 회담에서 양 정상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 백신을 직접 제공할겠다는 방침도 발표. 또한 미국과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에도 협력하기로 합의
 -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 등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 코로나19 백신 및 신산업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 등 회담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
- 5.21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국내 업체는 총 394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양국 간 경제 동맹을 강화
 - 삼성전자는 현지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 투자 방안을 발표했으며, SK하이닉스도 실리콘밸리에 약 10억 달러를 들여 AI와 낸드플래시 솔루션을 위한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
 -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는 GM·포드 등 미국 기업과 총 140억 달러 규모의 합작 및 단독투자를 진행하며 현대차는 현지 전기차 생산,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74억 달러를 투입
 -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며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

표 2-5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한미 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한국군 55만 명에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 최대사거리·탄두중량 제한 담은 ‘미사일 지침’ 42년 만에 종료
대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적 접근 재천명 • 북미정상회담, 먼저 실무진 협상과 핵무기 관련 약속해야 가능
코로나19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개발능력과 한국 생산능력을 결합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백신 생산량 확대 •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한국이 역내 백신 공급의 거점 역할 가능성 강조
경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신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 5G·6G 네트워크 기술, 바이오,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 • 해외 원전사업 공동참여 등 협력 강화

자료 : 언론 자료 재인용



□ 미·중 갈등은 EU·러시아 등 다자간으로, 정치·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

- 미국·EU가 중국 제재 가능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경제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강화
 - 러만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EU 집행위원회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5.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
 - 양측은 동맹이자 파트너인 시장경제 민주 국가로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중국 등 무역 교란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데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에 합의
 -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외국 방문(6월 중순, 영국, G7 정상회의)이 예정된 가운데 이뤄진 만큼 향후 미국과 EU의 대중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
- 또한 EU 의회가 중·EU 투자협정 비준 조건으로 중국의 對유럽 보복제재의 철회를 요구 (5.20일)하면서 미국에 대응해 유럽과 결속을 강화하려는 중국 전략에 차질 발생
 - 중국과 EU는 '20.12.30일 7년여 만에 양자 간 투자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 협정 발효를 위해 EU 의회 및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으나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동
 -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EU·영국·미국·캐나다는 중국에 제재를 가했으며 이에 중국은 '21.3월 EU에 보복조치를 발동
 - EU 의회는 EU의 對중 제재가 UN 조약에 명시한 인권침해에 근거하지만 중국의 보복 제재는 국제법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EU 의회는 중국이 해당 제재를 철회할 때까지 중국과의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는 결의안을 발의, 압도적 찬성(찬성 599표, 반대 30표, 기권 58표)으로 가결(5.20일)
 - 한편 발트해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동유럽 국가 간 '17+1' 경제 협력체⁶⁾에서 탈퇴한다고 선언(5.23일)하면서 유럽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 구상에 차질
- 전략적 연대 강화를 위한 중국의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미국·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결정 되면서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5.24~27일 열린 제16차 중·러 전략 안보 협상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중·러 간 연대 강화, 다자주의 지지, 대만·신장·홍콩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력
 - 한편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연대 관계인 러시아와 6.16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이 관계 전환을 모색하려는 행보로 분석
 - ※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미연방기관 해킹, 핵확산 차단,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

6) '17+1'은 '12년에 중국이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17개국과 만든 경제 협력체

□ 한편 미·중의 상대국에 대한 직접 제재 조치 시행은 연기되는 등 쌍방 간 갈등은 답보

- **(미국)**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재 조치 발표 시점을 다시 연기한 가운데 무역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
 - '20.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증권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해당 명령은 '21.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對중국 정책 재검토 기간을 거쳐 발효 시점을 기존 1.28일—5.27일로 연기했으며 5.18일, 6.11일로 발효시점을 재연기
 - ※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 기업의 투자자는 발효 시점 이후 신규거래를 중단하며 5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총 44개
 - 현재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행보에 따라 대상 기업과 조치 내용을 변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그러나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자금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확고한 것으로 분석
 - 한편 미국 정부가 물가상승 우려와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5.14일) 향후 對중 관세 축소에 나설지 주목
 -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등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본격화 조짐이 관측
- **(중국)** 일부 보복관세에 대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으며 대미 협상 대표 교체를 검토하는 등 교역 정책 비중을 축소하려는 정책 기조 변화가 관측
 - 중국 재정부는 '21.5.18일까지였던 희토류 광석과 금·은광석, 항공 레이더, 의료용 소독제 등 79개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오는 12.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발표('21.5.17일). 이는 미·중 무역 합의를 이어나가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풀이
 - ※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21.2월 65개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추가관세 면제를 '21.9.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또한 중국 정부는 對미 무역 협상 대표를 류허 부총리에서 후춘화 부총리로 교체를 검토. 후춘화 부총리가 대미 관계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번 교체가 중국이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
 - ※ 한편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입 규모가 큰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미국이 샤오미에 대해 블랙리스트 제외 결정(5.12일)을 내려, 이례적인 사례에 주목
 - 미국 행정부는 '21.1.14일, 중국군과 연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샤오미 등 중국 기업 9곳을 블랙리스트에 등록. 이들 기업이 중국군에 정보를 넘겨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
 - ※ 미국 국방부는 샤오미의 경우 중국 정부가 '19년 국가공로에 기여한 레이준 샤오미 설립자 겸 CEO에게 상을 수여했고, 5G 및 AI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



- 샤오미는 중국군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1.29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후 법원은 레이준 샤오미 CEO 외 500여명의 기업인이 비슷한 상을 받았고 5G 및 AI 기술 투자 계획 역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1.3월 샤오미에 승소를 판결했으며 5.12일 미 국방부가 샤오미의 블랙리스트 지정 해제를 결정
- 이번 해제는 무역에서 인권, 홍콩 문제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승리한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화웨이 등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다른 중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

※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미국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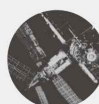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체결로 자동차·섬유·화장품 등 95% 상품 관세 철폐

-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에 정식 서명했으며 국회 비준 등을 거쳐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등이 무관세로 수출되면서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21.5.12일 서울에서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
- 양국은 '16.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6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9.8월 최종 타결했으며 이후 법률검토와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21.5월 최종 서명식을 개최
- 양국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며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
- (이스라엘 관세 철폐) 한국의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
- (한국 관세 철폐)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 시장 보호를 위해 철폐 기간을 확보. 다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전자응용기기는 3년 안에 철폐
-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했으며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을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최대 63개월) 연장 가능 등을 명시
- 이외에 양국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 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
- 이번 FTA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시장 선점 효과와 이스라엘 원천기술과 한국 제조업 기반이 결합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비중	1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4,628,612	-7.7	100.0	449,333	6.1	100.0	4,793,643	3.6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227,288	-12.3	69.7	303,580	10.3	67.6	3,320,840	2.9	69.3
- 전자부품	1,999,287	-16.0	43.2	189,454	13.7	42.2	2,046,771	2.4	42.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3,758	-14.9	2.2	11,406	5.2	2.5	149,785	44.4	3.1
- 통신 및 방송기기	366,591	-11.8	7.9	33,308	8.3	7.4	374,177	2.1	7.8
- 영상 및 음향기기	87,943	-9.9	1.9	6,530	-11.2	1.5	83,124	-5.5	1.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69,709	0.9	14.5	62,881	5.4	14.0	666,983	-0.4	13.9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81,574	1.9	16.9	71,088	8.9	15.8	808,327	3.4	16.9
- 통신서비스	364,622	-2.2	7.9	31,721	7.6	7.1	370,695	1.7	7.7
· 유선통신서비스	101,557	-3.8	2.2	8,580	1.1	1.9	101,257	-0.3	2.1
· 무선통신서비스	240,755	-1.5	5.2	21,353	11.4	4.8	247,970	3.0	5.2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309	-1.8	0.5	1,788	-2.1	0.4	21,469	-3.8	0.4
- 방송서비스	190,915	2.0	4.1	17,178	4.7	3.8	196,387	2.9	4.1
· 지상파방송서비스	35,262	-7.4	0.8	3,361	4.7	0.7	34,144	-3.2	0.7
· 유료방송서비스	64,294	5.7	1.4	5,793	4.3	1.3	69,218	7.7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0,809	3.6	2.0	7,968	5.0	1.8	92,476	1.8	1.9
· 기타방송서비스	550	3.3	0.0	56	-2.6	0.0	548	-0.3	0.0
- 정보서비스	226,037	9.3	4.9	22,189	14.4	4.9	241,245	6.7	5.0
· 정보인프라서비스	40,122	1.3	0.9	3,265	-4.9	0.7	39,152	-2.4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185,915	11.2	4.0	18,924	18.5	4.2	202,093	8.7	4.2
○ 소프트웨어	619,750	8.5	13.4	74,665	-9.9	16.6	664,477	7.2	13.9
- 패키지 소프트웨어	121,895	18.2	2.6	17,999	2.1	4.0	131,326	7.7	2.7
- 게임 소프트웨어	120,374	1.5	2.6	15,132	13.5	3.4	141,106	17.2	2.9
- IT 서비스	377,482	8.0	8.2	41,534	-20.0	9.2	392,045	3.9	8.2

자료 : KEA, KAIT, 2021.5.

2 2021년 4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년	5,478.7	1,552.4	-0.9	5,195.8	779.5	-4.4	282.9	772.8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1/4분기	1,301.8	430.9	0.4	1,215.0	259.8	0.4	86.8	171.1
2/4분기	1,103.4	417.3	-5.8	1,083.9	267.8	-3.3	19.5	149.5
3/4분기	1,300.7	478.0	5.2	1,140.7	286.2	4.7	160.1	191.8
4/4분기	1,419.0	508.8	15.3	1,236.8	312.4	13.8	182.3	196.4
상반기	2,405.2	848.2	-2.8	2,298.9	527.6	-1.6	106.3	320.6
하반기	2,719.8	986.9	10.2	2,377.4	598.7	9.3	342.3	388.2
1월	431.0	134.0	-7.2	427.2	88.3	-6.1	3.8	45.7
2월	409.1	137.0	8.2	369.8	77.0	5.7	39.3	60.0
3월	461.7	159.9	1.1	418.0	94.5	2.8	43.6	65.5
4월	362.7	128.7	-15.3	379.3	88.7	-6.4	-16.6	40.0
5월	348.5	139.2	-2.7	346.6	89.3	-7.7	1.9	49.9
6월	392.1	149.5	0.9	357.9	89.8	5.0	34.2	59.6
7월	427.9	149.7	3.3	388.5	98.6	1.2	39.4	51.2
8월	394.7	152.2	0.2	358.2	92.0	4.4	36.5	60.1
9월	478.2	176.1	11.8	394.0	95.6	9.1	84.2	80.5
10월	448.2	163.9	5.9	390.9	102.2	9.3	57.2	61.7
11월	457.5	165.3	15.8	399.4	103.7	14.2	58.1	61.6
12월	513.3	179.6	24.9	446.4	106.5	18.2	66.9	73.1
2021년	1,976.8	660.2	18.0	1,869.0	416.5	19.5	107.8	243.8
1/4분기	1,464.9	489.6	13.6	1,361.0	308.7	18.8	103.9	180.9
1월	480.1	162.8	21.5	442.6	107.6	21.8	37.5	55.3
2월	446.9	152.6	11.4	421.9	91.9	19.3	25.0	60.8
3월	537.8	174.1	8.9	496.5	109.3	15.7	41.3	64.9
4월	511.9	170.6	32.6	508.0	107.8	21.5	3.9	62.9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3.8	100.0	17,064	32.6	100.0	66,022	18.0	100.0
○전자부품	131,075	3.4	71.4	12,009	30.5	70.4	46,950	18.0	71.1
- 반도체	100,251	5.4	54.6	9,395	29.4	55.1	36,182	17.0	54.8
· 메모리반도체	63,929	1.5	34.8	5,927	18.8	34.7	22,585	15.6	34.2
· 시스템반도체	30,263	17.8	16.5	2,935	59.0	17.2	11,438	21.8	17.3
- 디스플레이	20,713	-5.1	11.3	1,675	35.1	9.8	7,052	22.2	10.7
- 전자관	4	-11.9	0.0	0	32.5	0.0	1	-8.7	0.0
- 수동부품	2,032	6.5	1.1	204	59.9	1.2	787	38.2	1.2
PCB	5,032	4.8	2.7	431	18.4	2.5	1,750	11.4	2.7
- 접속부품	2,853	-0.3	1.6	286	48.1	1.7	1,104	25.7	1.7
- 기타전자부품	132	-17.0	0.1	12	24.7	0.1	50	6.5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53.0	7.6	1,122	3.9	6.6	4,494	1.9	6.8
- 컴퓨터	2,061	4.2	1.1	164	8.8	1.0	660	17.4	1.0
- 주변기기	11,846	66.6	6.5	958	3.1	5.6	3,835	-0.3	5.8
· 디스플레이장치	580	-39.1	0.3	49	19.4	0.3	195	-23.5	0.3
· 프린터(부분품포함)	362	-16.1	0.2	40	16.7	0.2	143	23.0	0.2
· 보조기억장치	10,107	100.0	5.5	755	-8.8	4.4	3,157	-1.4	4.8
○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5.3	7.5	1,499	79.1	8.8	5,439	34.9	8.2
- 통신기기	13,208	-6.0	7.2	1,451	80.5	8.5	5,259	35.1	8.0
· 유선통신기기	825	-1.0	0.4	78	28.7	0.5	279	15.2	0.4
· 무선통신기기	12,383	-6.3	6.7	1,373	84.7	8.0	4,979	36.4	7.5
휴대폰(부분품 포함)	11,228	-6.3	6.1	1,235	89.7	7.2	4,565	40.8	6.9
- 방송용 장비	469	21.0	0.3	48	44.5	0.3	180	29.0	0.3
○영상 및 음향기기	2,627	-40.8	1.4	206	55.7	1.2	779	-14.7	1.2
- 영상기기	1,784	-48.1	1.0	147	73.3	0.9	521	-18.0	0.8
· TV	1,474	-51.8	0.8	108	59.1	0.6	379	-29.1	0.6
LCD TV	198	-47.6	0.1	3	-88.0	0.0	9	-92.3	0.0
TV 부분품	1,166	-54.7	0.6	103	196.3	0.6	365	-1.9	0.6
· 셋탑박스	13	-39.0	0.0	2	103.5	0.0	6	160.4	0.0
- 음향기기	802	-16.3	0.4	55	22.5	0.3	246	-7.1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40	2.2	0.0	3	48.3	0.0	12	-2.5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222	0.5	12.1	2,228	37.6	13.1	8,360	22.4	12.7
-가정용전기기기	4,197	16.5	2.3	469	82.3	2.8	1,694	50.5	2.6
-사무용기기	341	3.9	0.2	34	-2.9	0.2	122	-7.6	0.2
-의료용기기	2,041	-4.3	1.1	204	39.0	1.2	778	23.4	1.2
-전기 장비	10,435	-0.8	5.7	995	25.9	5.8	3,824	15.3	5.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1.0	4.1	733	27.3	4.3	2,805	17.9	4.2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12,628	3.9	100.0	10,776	21.5	100.0	41,652	19.5	100.0
○ 전자부품	61,644	5.6	54.7	5,712	25.2	53.0	21,920	15.7	52.6
- 반도체	50,627	6.8	45.0	4,679	28.1	43.4	18,022	16.4	43.3
· 메모리반도체	18,887	-2.2	16.8	1,393	-2.1	12.9	5,754	3.2	13.8
· 시스템반도체	24,650	18.7	21.9	2,560	55.4	23.8	9,550	25.2	22.9
- 디스플레이	3,818	-8.0	3.4	300	-14.1	2.8	1,114	-13.1	2.7
- 전자관	56	34.6	0.0	7	-8.4	0.1	22	-3.0	0.1
- 수동부품	2,229	12.7	2.0	236	28.7	2.2	883	29.2	2.1
PCB	2,364	4.8	2.1	215	30.3	2.0	872	27.5	2.1
- 접속부품	2,169	-2.1	1.9	228	30.6	2.1	854	25.1	2.1
- 기타전자부품	287	4.6	0.3	39	54.5	0.4	123	44.8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425	16.6	11.9	1,359	14.2	12.6	5,764	33.8	13.8
- 컴퓨터	7,954	14.6	7.1	818	11.1	7.6	3,664	40.5	8.8
- 주변기기	5,472	19.5	4.9	540	19.3	5.0	2,100	23.5	5.0
· 디스플레이장치	877	20.1	0.8	86	4.2	0.8	374	35.3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867	-1.8	0.8	85	12.0	0.8	346	18.3	0.8
· 보조기억장치	2,669	34.5	2.4	262	23.3	2.4	983	18.3	2.4
○ 통신 및 방송기기	14,509	-5.9	12.9	1,354	14.8	12.6	5,361	19.4	12.9
- 통신기기	14,033	-6.9	12.5	1,306	15.2	12.1	5,181	19.2	12.4
· 유선통신기기	1,916	-10.8	1.7	169	24.3	1.6	688	28.2	1.7
· 무선통신기기	12,117	-6.2	10.8	1,137	13.9	10.6	4,493	17.9	10.8
휴대폰(부분품 포함)	9,067	-8.8	8.1	838	10.6	7.8	3,354	15.1	8.1
- 방송용 장비	476	35.1	0.4	49	5.7	0.5	180	27.3	0.4
○ 영상 및 음향기기	3,378	-26.0	3.0	412	37.4	3.8	1,358	19.2	3.3
- 영상기기	2,144	-33.7	1.9	286	49.3	2.7	882	14.7	2.1
· TV	1,600	-40.5	1.4	235	56.0	2.2	707	14.6	1.7
LCD TV	663	10.6	0.6	88	42.5	0.8	324	47.2	0.8
TV 부분품	819	-59.0	0.7	113	39.3	1.0	267	-27.8	0.6
· 셋탑박스	193	17.8	0.2	15	-19.2	0.1	58	16.7	0.1
- 음향기기	1,004	-6.1	0.9	100	18.4	0.9	369	16.3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231	-12.9	0.2	26	9.4	0.2	108	99.4	0.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672	6.5	17.5	1,939	18.3	18.0	7,249	21.6	17.4
- 가정용전기기기	3,945	9.5	3.5	438	41.7	4.1	1,440	43.1	3.5
- 사무용기기	32	-28.5	0.0	2	-22.2	0.0	11	-3.2	0.0
- 의료용기기	2,183	4.2	1.9	197	5.6	1.8	746	0.1	1.8
- 전기 장비	5,905	10.9	5.2	614	23.9	5.7	2,406	32.8	5.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2,524	12.1	2.2	256	30.2	2.4	1,020	42.0	2.4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112,628	70,881	17,064	10,776	6,288	24,369
○전자부품	131,075	61,644	69,432	12,009	5,712	6,297	25,030
- 반도체	100,251	50,627	49,624	9,395	4,679	4,716	18,160
· 메모리반도체	63,929	18,887	45,041	5,927	1,393	4,534	16,831
· 시스템반도체	30,263	24,650	5,613	2,935	2,560	376	1,888
- 디스플레이	20,713	3,818	16,895	1,675	300	1,375	5,938
- 전자관	4	56	-52	0	7	-7	-20
- 수동부품	2,032	2,229	-198	204	236	-31	-96
PCB	5,032	2,364	2,669	431	215	216	879
- 접속부품	2,853	2,169	684	286	228	58	250
- 기타전자부품	132	287	-154	12	39	-27	-7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13,425	482	1,122	1,359	-237	-1,270
- 컴퓨터	2,061	7,954	-5,893	164	818	-654	-3,004
- 주변기기	11,846	5,472	6,375	958	540	418	1,734
· 디스플레이장치	580	877	-297	49	86	-37	-179
· 프린터(부분품포함)	362	867	-504	40	85	-45	-203
· 보조기억장치	10,107	2,669	7,438	755	262	492	2,174
○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14,509	-831	1,499	1,354	145	78
- 통신기기	13,208	14,033	-824	1,451	1,306	146	78
· 유선통신기기	825	1,916	-1,091	78	169	-90	-409
· 무선통신기기	12,383	12,117	267	1,373	1,137	236	486
휴대폰(부분품 포함)	11,228	9,067	2,161	1,235	838	397	1,211
- 방송용 장비	469	476	-7	48	49	-1	0
○영상 및 음향기기	2,627	3,378	-751	206	412	-206	-579
- 영상기기	1,784	2,144	-359	147	286	-138	-360
· TV	1,474	1,600	-126	108	235	-127	-328
LCD TV	198	663	-465	3	88	-85	-315
TV 부분품	1,166	819	347	103	113	-10	98
· 셋탑박스	13	193	-179	2	15	-13	-52
- 음향기기	802	1,004	-201	55	100	-45	-123
- 기타 영상음향기기	40	231	-190	3	26	-23	-96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222	19,672	2,550	2,228	1,939	289	1,110
- 가정용전기기기	4,197	3,945	253	469	438	32	254
- 사무용기기	341	32	310	34	2	32	111
- 의료용기기	2,041	2,183	-142	204	197	7	32
- 전기 장비	10,435	5,905	4,530	995	614	381	1,41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2,524	5,090	733	256	477	1,785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83,509	3.8	100.0	17,064	32.6	100.0	66,022	18.0	100.0
○ 아시아	141,680	3.2	77.2	12,966	32.6	76.0	50,652	18.4	76.7
- 중국(홍콩포함)	86,872	0.1	47.3	8,035	21.6	47.1	30,685	16.2	46.5
- 일 본	3,899	-5.2	2.1	316	-1.4	1.9	1,364	-2.2	2.1
- ASEAN	40,512	7.9	22.1	3,468	50.8	20.3	13,977	14.2	21.2
· 싱가포르	3,231	12.6	1.8	376	35.4	2.2	1,326	12.8	2.0
· 인 니	779	-9.2	0.4	95	118.7	0.6	305	24.1	0.5
· 말 련	2,101	3.2	1.1	188	3.0	1.1	747	3.1	1.1
· 태 국	1,130	1.3	0.6	130	37.4	0.8	444	20.5	0.7
· 베트남	29,763	9.6	16.2	2,387	67.0	14.0	9,998	15.2	15.1
- 대 만	7,937	40.2	4.3	920	91.5	5.4	3,608	90.7	5.5
- 인 도	2,221	-20.9	1.2	207	252.8	1.2	946	28.7	1.4
○ 북미	22,771	18.3	12.4	2,177	25.8	12.8	8,133	14.3	12.3
- 미 국	22,085	20.2	12.0	2,125	25.2	12.5	7,908	14.2	12.0
- 캐나다	589	-24.9	0.3	42	72.1	0.2	191	21.4	0.3
○ 유럽	12,566	4.7	6.8	1,303	35.6	7.6	4,866	23.7	7.4
- EU	10,402	-3.1	5.7	1,089	24.7	6.4	4,033	14.2	6.1
· 독 일	2,890	3.0	1.6	306	14.6	1.8	1,148	24.2	1.7
· 프랑스	595	-29.0	0.3	70	70.3	0.4	235	17.8	0.4
· 이탈리아	328	14.2	0.2	52	147.5	0.3	156	60.3	0.2
- 영 국	846	48.0	0.5	94	26.4	0.6	377	77.5	0.6
- 러시아	725	4.5	0.4	69	48.9	0.4	245	13.1	0.4
○ 중동	1,681	-13.7	0.9	166	33.4	1.0	572	-7.3	0.9
- 사우디	238	2.0	0.1	17	-16.9	0.1	75	-7.6	0.1
- UAE	569	14.4	0.3	52	16.7	0.3	192	-14.4	0.3
○ 중남미	3,807	-28.3	2.1	354	79.6	2.1	1,468	22.1	2.2
- 브라질	1,449	-16.7	0.8	120	93.3	0.7	555	23.2	0.8
- 멕시코	2,103	-24.4	1.1	207	73.7	1.2	804	22.0	1.2
- 칠 레	80	-1.3	0.0	13	125.9	0.1	41	33.0	0.1
○ 대양주	711	-4.8	0.4	71	33.0	0.4	222	-0.6	0.3
- 호 주	634	-5.2	0.3	61	24.9	0.4	192	-4.5	0.3
○ 아프리카	281	-20.2	0.2	28	34.4	0.2	108	10.6	0.2
※ 브릭스	67,226	0.6	36.6	6,024	21.7	35.3	23,580	19.3	35.7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12,628	3.9	100.0	10,776	21.5	100.0	41,652	19.5	100.0
○ 아시아	92,815	5.2	82.4	9,281	23.8	86.1	35,052	21.7	84.2
- 중국(홍콩포함)	48,230	3.0	42.8	3,728	-12.6	34.6	16,947	14.3	40.7
- 일 본	10,428	3.9	9.3	986	15.7	9.1	3,797	14.4	9.1
- ASEAN	20,561	2.9	18.3	2,028	41.6	18.8	7,653	16.4	18.4
· 싱가포르	3,942	33.9	3.5	323	24.2	3.0	1,241	7.1	3.0
· 인 니	475	11.8	0.4	84	174.3	0.8	295	110.2	0.7
· 말 련	3,277	2.0	2.9	293	77.9	2.7	1,173	21.1	2.8
· 태 국	1,545	14.2	1.4	172	58.3	1.6	656	39.7	1.6
· 베트남	9,747	-1.0	8.7	1,044	41.4	9.7	3,824	17.7	9.2
- 대 만	13,507	19.9	12.0	1,333	41.6	12.4	5,427	33.7	13.0
- 인 도	80	-17.4	0.1	7	25.6	0.1	27	-2.6	0.1
○ 북미	8,368	-7.0	7.4	754	16.6	7.0	2,984	5.2	7.2
- 미 국	8,033	-7.3	7.1	723	16.3	6.7	2,869	5.2	6.9
- 캐나다	236	5.3	0.2	18	4.2	0.2	72	-3.8	0.2
○ 유럽	7,027	-5.3	6.2	597	13.4	5.5	2,347	4.8	5.6
- EU	6,095	-12.9	5.4	522	6.1	4.8	2,028	-4.0	4.9
· 독 일	2,948	6.3	2.6	259	13.8	2.4	992	9.6	2.4
· 프랑스	750	-2.8	0.7	59	53.3	0.5	230	-10.6	0.6
· 이탈리아	351	4.2	0.3	29	26.8	0.3	121	16.7	0.3
- 영 국	514	-3.1	0.5	38	14.0	0.3	164	6.0	0.4
- 러시아	21	18.5	0.0	2	12.5	0.0	9	10.9	0.0
○ 중동	552	22.7	0.5	50	32.1	0.5	260	49.2	0.6
- 사우디	2	309.4	0.0	0	135.2	0.0	1	93.2	0.0
- UAE	73	1.4	0.1	5	6.8	0.0	18	-4.3	0.0
○ 중남미	889	-1.4	0.8	79	28.8	0.7	320	9.4	0.8
- 브라질	11	24.4	0.0	3	318.9	0.0	8	164.8	0.0
- 멕시코	868	-1.5	0.8	76	25.6	0.7	311	7.9	0.7
- 칠 레	1	-59.4	0.0	0	45.5	0.0	0	-5.7	0.0
○ 대양주	91	-35.4	0.1	12	84.3	0.1	34	26.3	0.1
- 호 주	62	-37.4	0.1	6	13.8	0.1	23	15.5	0.1
○ 아프리카	54	-9.6	0.0	1	-75.1	0.0	8	-48.2	0.0
※ 브릭스	47,389	3.8	42.1	3,704	-10.9	34.4	16,735	15.0	40.2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수출	수입	수지	4월 당월			4월 누적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세계	183,509	112,628	70,881	17,064	10,776	6,288	24,369
○ 아시아	141,680	92,815	48,865	12,966	9,281	3,684	15,600
- 중국(홍콩포함)	86,872	48,230	38,642	8,035	3,728	4,307	13,738
- 일 본	3,899	10,428	-6,530	316	986	-669	-2,432
- ASEAN	40,512	20,561	19,951	3,468	2,028	1,439	6,324
· 싱가포르	3,231	3,942	-711	376	323	53	85
· 인 니	779	475	304	95	84	12	10
· 말 련	2,101	3,277	-1,176	188	293	-105	-427
· 태 국	1,130	1,545	-415	130	172	-43	-213
· 베트남	29,763	9,747	20,016	2,387	1,044	1,343	6,174
- 대 만	7,937	13,507	-5,570	920	1,333	-413	-1,819
- 인 도	2,221	80	2,141	207	7	200	920
○ 북미	22,771	8,368	14,403	2,177	754	1,422	5,148
- 미 국	22,085	8,033	14,052	2,125	723	1,403	5,038
- 캐나다	589	236	353	42	18	24	119
○ 유럽	12,566	7,027	5,539	1,303	597	706	2,519
- EU	10,402	6,095	4,307	1,089	522	567	2,005
· 독 일	2,890	2,948	-58	306	259	47	156
· 프랑스	595	750	-155	70	59	12	5
· 이탈리아	328	351	-23	52	29	23	35
- 영 국	846	514	331	94	38	56	213
- 러시아	725	21	704	69	2	67	236
○ 중동	1,681	552	1,129	166	50	115	312
- 사우디	238	2	236	17	0	17	73
- UAE	569	73	496	52	5	47	175
○ 중남미	3,807	889	2,917	354	79	275	1,147
- 브라질	1,449	11	1,438	120	3	117	547
- 멕시코	2,103	868	1,236	207	76	131	493
- 칠 레	80	1	79	13	0	13	41
○ 대양주	711	91	620	71	12	59	188
- 호 주	634	62	572	61	6	55	169
○ 아프리카	281	54	227	28	1	27	99
※ 브릭스	67,226	47,389	19,837	6,024	3,704	2,319	6,845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0,100	8.1	100.0	945	36.6	100.0	2,673	50.9	100.0
○ 전자부품	2,609	7.7	25.8	263	31.2	27.8	713	36.0	26.7
- 반도체	1,877	9.0	18.6	186	29.6	19.7	504	32.2	18.8
- 디스플레이 패널	244	-5.1	2.4	28	36.1	2.9	74	40.7	2.8
- 전자관	1	-17.1	0.0	0	70.0	0.0	0	74.2	0.0
- 수동부품	115	38.9	1.1	11	52.7	1.2	31	61.8	1.1
- PCB	151	3.1	1.5	16	29.5	1.7	44	43.3	1.6
- 접속부품	197	4.0	1.9	19	32.4	2.0	56	53.2	2.1
- 기타 전자부품	24	-2.1	0.2	2	21.3	0.3	5	5.0	0.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24	10.4	20.0	197	45.7	20.9	546	67.6	20.4
- 컴퓨터	1,385	15.4	13.7	137	55.5	14.5	377	83.3	14.1
- 주변기기	639	1.0	6.3	61	27.5	6.4	168	40.6	6.3
· 디스플레이장치	162	2.7	1.6	16	49.6	1.7	45	62.4	1.7
· 프린터(부품포함)	128	-18.4	1.3	12	22.4	1.3	35	30.9	1.3
· 보조기억장치	174	0.4	1.7	16	0.1	1.7	44	13.7	1.6
· 저장 매체	32	-6.2	0.3	3	-4.4	0.3	8	4.8	0.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44	29.4	1.4	14	70.9	1.4	38	87.0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373	0.1	23.5	205	25.2	21.7	619	44.3	23.1
- 통신기기	2,265	-0.4	22.4	196	24.0	20.7	590	43.1	22.1
· 유선통신기기	498	3.0	4.9	38	14.4	4.1	113	27.9	4.2
· 무선통신기기	1,766	-1.3	17.5	157	26.6	16.6	477	47.2	17.8
- 방송국용 기기	108	10.8	1.1	10	57.9	1.0	29	73.3	1.1
○ 영상 및 음향기기	689	7.8	6.8	61	54.2	6.5	186	81.3	6.9
- 영상기기	338	4.5	3.3	33	34.2	3.4	89	44.4	3.3
- 음향기기	234	12.1	2.3	18	42.4	1.9	61	85.0	2.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6	9.7	1.2	11	268.7	1.1	35	379.4	1.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405	15.8	23.8	218	43.4	23.1	610	56.4	22.8
- 가정용 기기	909	18.2	9.0	91	48.4	9.6	233	57.3	8.7
- 사무용 기기	40	-9.3	0.4	3	8.7	0.3	10	23.3	0.4
- 의료용 기기	162	43.3	1.6	14	43.3	1.4	39	62.0	1.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43	23.3	2.4	22	33.2	2.3	60	50.1	2.3
- 전기 장비	1,052	10.2	10.4	89	42.8	9.4	268	57.7	10.0
· 건전지 및 축전지	241	17.1	2.4	28	59.4	3.0	56	28.5	2.1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742	9.0	100.0	682	23.5	100.0	1,782	30.0	100.0
○ 전자부품	4,772	11.1	70.8	484	23.6	71.0	1,268	29.7	71.1
- 반도체	4,001	13.2	59.3	408	23.2	59.8	1,066	30.1	59.8
- 디스플레이 패널	296	-6.6	4.4	29	25.3	4.2	78	24.2	4.4
- 전자관	2	3.6	0.0	0	36.3	0.0	0	57.6	0.0
- 수동부품	179	22.9	2.7	18	40.1	2.7	46	35.8	2.6
- PCB	109	-3.3	1.6	9	4.0	1.4	27	17.5	1.5
- 접속부품	181	1.1	2.7	19	26.6	2.8	51	33.6	2.8
- 기타 전자부품	4	-9.8	0.1	0	-6.2	0.1	1	-20.5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50	6.8	6.7	48	22.8	7.0	119	21.8	6.7
- 컴퓨터	29	-11.1	0.4	4	47.7	0.5	9	62.7	0.5
- 주변기기	422	8.3	6.3	44	21.1	6.5	109	19.2	6.1
· 디스플레이장치	8	7.9	0.1	1	-14.2	0.1	2	9.1	0.1
· 프린터(부품포함)	56	-14.7	0.8	6	35.0	0.9	15	26.3	0.9
· 보조기억장치	257	12.6	3.8	26	12.1	3.9	65	13.6	3.7
· 저장 매체	47	9.2	0.7	5	7.1	0.7	11	6.4	0.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4	19.2	0.8	6	89.3	0.9	15	59.5	0.9
○ 통신 및 방송기기	473	-0.1	7.0	45	27.0	6.6	136	60.6	7.6
- 통신기기	448	1.9	6.6	43	27.3	6.3	130	63.0	7.3
· 유선통신기기	69	5.1	1.0	7	24.0	1.0	21	55.6	1.2
· 무선통신기기	378	1.4	5.6	36	28.0	5.3	110	64.4	6.2
- 방송국용 기기	25	-26.0	0.4	2	20.1	0.3	6	21.8	0.3
○ 영상 및 음향기기	196	12.0	2.9	17	-0.3	2.5	48	23.5	2.7
- 영상기기	148	23.9	2.2	13	4.5	1.9	39	35.9	2.2
- 음향기기	43	-13.3	0.6	3	-22.3	0.5	8	-16.2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5	-15.4	0.1	1	96.0	0.1	1	61.7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50	4.2	12.6	88	27.3	13.0	211	22.5	11.8
- 가정용 기기	180	-0.6	2.7	20	34.4	2.9	45	19.1	2.5
- 사무용 기기	5	-14.0	0.1	0	11.1	0.1	1	9.4	0.1
- 의료용 기기	113	6.2	1.7	14	34.6	2.0	31	31.6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64	7.8	5.4	37	27.4	5.4	90	24.3	5.0
- 전기 장비	188	1.5	2.8	17	15.8	2.6	44	17.2	2.4
· 건전지 및 축전지	71	3.8	1.0	6	6.3	0.9	15	6.8	0.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486	-6.6	100.0	248	12.2	100.0	663	3.2	100.0
○ 전자부품	848	-2.4	34.1	84	12.4	33.7	227	5.2	34.3
- 반도체	643	-0.3	25.9	62	12.7	25.1	171	5.9	25.8
- 디스플레이 패널	31	-0.3	1.3	3	12.5	1.3	9	12.8	1.3
- 전자관	3	-1.0	0.1	0	25.8	0.1	1	-6.7	0.1
- 수동부품	31	-0.5	1.2	3	30.4	1.4	9	15.2	1.3
- PCB	12	-4.0	0.5	1	-4.1	0.5	3	-1.5	0.5
- 접속부품	125	-12.4	5.0	13	8.6	5.2	35	-0.9	5.2
- 기타 전자부품	2	-18.3	0.1	0	19.3	0.1	1	-9.3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57	-2.3	14.4	37	22.5	14.8	97	10.3	14.6
- 컴퓨터	153	-1.7	6.1	15	22.4	6.1	41	10.9	6.1
- 주변기기	204	-2.8	8.2	21	22.6	8.7	56	9.9	8.5
· 디스플레이장치	15	-16.8	0.6	1	-2.3	0.6	4	-9.4	0.6
· 프린터(부품포함)	33	-22.5	1.3	3	-5.8	1.4	9	-11.7	1.4
· 보조기억장치	51	-4.2	2.0	5	24.2	2.1	13	6.8	2.0
· 저장 매체	61	31.3	2.4	7	66.0	2.7	18	44.9	2.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4	-10.6	1.8	5	11.8	1.9	12	2.8	1.9
○ 통신 및 방송기기	334	-12.1	13.5	34	14.6	13.7	93	6.8	14.1
- 통신기기	310	-11.5	12.5	31	14.6	12.6	87	7.1	13.1
· 유선통신기기	161	-10.1	6.5	16	8.6	6.4	41	1.2	6.3
· 무선통신기기	149	-12.9	6.0	15	21.6	6.2	45	13.0	6.8
- 방송국용 기기	25	-19.1	1.0	3	15.0	1.1	7	3.8	1.0
○ 영상 및 음향기기	84	-16.1	3.4	7	-2.2	2.8	20	-6.1	3.0
- 영상기기	33	-27.7	1.3	3	-22.1	1.0	8	-15.6	1.2
- 음향기기	37	-8.9	1.5	3	4.1	1.3	9	-8.7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4	2.1	0.6	1	47.9	0.6	4	36.2	0.5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62	-9.0	34.7	87	8.5	35.0	226	-1.8	34.0
- 가정용 기기	120	-8.4	4.8	12	11.6	4.8	32	-1.6	4.8
- 사무용 기기	9	-18.4	0.3	1	-15.7	0.3	2	-18.8	0.3
- 의료용 기기	262	-1.7	10.5	27	8.2	10.7	67	-1.0	10.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77	-8.8	11.1	28	9.6	11.3	73	0.3	11.0
- 전기 장비	194	-17.4	7.8	20	6.8	7.9	52	-4.8	7.9
· 건전지 및 축전지	49	-9.9	2.0	5	6.2	1.9	13	-8.1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218	1.4	100.0	508	35.6	100.0	1,375	25.6	100.0
○ 전자부품	893	3.1	17.1	98	17.0	19.3	244	9.8	17.7
- 반도체	695	7.4	13.3	77	14.9	15.1	187	8.4	13.6
- 디스플레이 패널	30	0.5	0.6	3	38.1	0.6	9	19.7	0.6
- 전자관	3	-7.8	0.0	0	-25.5	0.0	1	-6.8	0.0
- 수동부품	30	-11.5	0.6	3	29.2	0.7	9	19.6	0.7
- PCB	17	-6.5	0.3	2	19.9	0.4	5	19.2	0.4
- 접속부품	113	-11.3	2.2	12	22.4	2.4	32	11.5	2.4
- 기타 전자부품	5	-20.3	0.1	0	53.9	0.1	1	17.0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76	10.5	26.4	126	38.7	24.9	345	34.0	25.1
- 컴퓨터	879	14.9	16.8	80	48.3	15.7	219	48.9	15.9
- 주변기기	497	3.5	9.5	47	25.0	9.2	126	14.2	9.2
· 디스플레이장치	78	-13.7	1.5	8	83.0	1.6	22	57.3	1.6
· 프린터(부품포함)	117	-18.9	2.2	13	28.7	2.5	33	10.4	2.4
· 보조기억장치	85	19.7	1.6	7	-12.5	1.4	22	3.4	1.6
· 저장 매체	145	32.4	2.8	13	20.5	2.5	32	1.7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2	10.6	1.4	6	37.8	1.2	18	23.5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082	-7.0	20.7	91	29.8	18.0	263	23.3	19.2
- 통신기기	974	-7.6	18.7	82	28.5	16.1	238	23.3	17.3
· 유선통신기기	404	-2.3	7.7	37	21.8	7.3	97	11.1	7.0
· 무선통신기기	570	-11.0	10.9	45	34.7	8.8	142	33.3	10.3
- 방송국용 기기	108	-1.5	2.1	9	42.3	1.8	25	23.7	1.8
○ 영상 및 음향기기	357	10.5	6.8	34	96.2	6.7	97	72.6	7.1
- 영상기기	161	-5.9	3.1	12	28.3	2.5	33	7.6	2.4
- 음향기기	122	19.9	2.3	15	155.6	3.0	40	104.9	2.9
- 기타 영상음향기기	73	47.8	1.4	7	266.6	1.3	24	314.0	1.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0	-2.5	28.9	158	41.3	31.1	425	23.4	30.9
- 가정용 기기	401	4.5	7.7	43	74.7	8.4	118	51.5	8.6
- 사무용 기기	24	-14.6	0.5	2	14.8	0.4	6	-3.1	0.4
- 의료용 기기	311	1.7	6.0	31	20.2	6.1	82	10.7	6.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7.2	5.1	27	16.1	5.3	70	5.4	5.1
- 전기 장비	506	-6.7	9.7	55	51.0	10.9	149	24.4	10.8
· 건전지 및 축전지	105	14.5	2.0	14	85.5	2.7	35	50.3	2.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0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7,160	-3.5	100.0	14,366	12.5	100.0	38,515	7.0	100.0
○ 전자부품	77,039	-0.2	52.4	7,161	11.3	49.8	19,896	8.5	51.7
- 반도체	46,414	1.9	31.5	4,238	11.0	29.5	11,826	7.8	30.7
- 디스플레이 패널	7,314	-7.1	5.0	612	1.2	4.3	1,737	-2.3	4.5
- 전자관	261	-4.1	0.2	25	-10.2	0.2	69	4.2	0.2
- 수동부품	9,385	6.8	6.4	909	16.3	6.3	2,547	17.5	6.6
- PCB	2,987	-0.8	2.0	235	0.2	1.6	707	8.7	1.8
- 접속부품	10,158	-8.5	6.9	1,083	18.3	7.5	2,851	11.2	7.4
- 기타 전자부품	520	-18.6	0.4	60	19.8	0.4	159	7.3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449	-12.3	8.5	1,244	9.7	8.7	3,347	-1.5	8.7
- 컴퓨터	993	2.1	0.7	83	4.9	0.6	220	-5.6	0.6
- 주변기기	11,456	-13.4	7.8	1,161	10.1	8.1	3,128	-1.2	8.1
· 디스플레이장치	1,154	-1.7	0.8	111	-10.9	0.8	327	-3.2	0.8
· 프린터(부품포함)	8,070	-15.9	5.5	818	17.2	5.7	2,234	0.2	5.8
· 보조기억장치	184	-41.6	0.1	23	-0.3	0.2	46	-23.8	0.1
· 저장 매체	1,535	-2.5	1.0	157	-3.3	1.1	387	-5.5	1.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14	-8.9	0.3	51	10.6	0.4	134	2.9	0.3
○ 통신 및 방송기기	6,326	-15.0	4.3	641	22.8	4.5	1,656	3.9	4.3
- 통신기기	3,765	-15.7	2.6	357	2.1	2.5	946	-2.7	2.5
· 유선통신기기	1,093	-14.4	0.7	90	-16.2	0.6	269	-10.8	0.7
· 무선통신기기	2,673	-16.2	1.8	267	10.2	1.9	677	0.9	1.8
- 방송국용 기기	2,561	-14.1	1.7	284	65.0	2.0	710	14.2	1.8
○ 영상 및 음향기기	5,297	1.7	3.6	389	-1.1	2.7	1,056	-6.4	2.7
- 영상기기	1,933	-18.9	1.3	179	-1.3	1.2	479	-3.6	1.2
- 음향기기	447	-10.6	0.3	45	16.3	0.3	121	6.1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2,917	25.4	2.0	165	-4.9	1.1	456	-11.8	1.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048	-5.0	31.3	4,931	15.1	34.3	12,560	8.9	32.6
- 가정용 기기	9,231	-5.6	6.3	1,052	22.1	7.3	2,550	17.5	6.6
- 사무용 기기	369	-14.4	0.3	35	10.3	0.2	85	-9.9	0.2
- 의료용 기기	5,959	-1.0	4.0	579	3.6	4.0	1,541	3.6	4.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8,067	-7.4	12.3	1,974	20.9	13.7	5,054	10.4	13.1
- 전기 장비	12,422	-2.3	8.4	1,290	7.7	9.0	3,330	3.7	8.6
· 건전지 및 축전지	6,201	-3.2	4.2	686	16.6	4.8	1,779	13.3	4.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8,819	-2.9	100.0	14,350	10.5	100.0	41,583	17.1	100.0
○ 전자부품	36,602	-5.7	24.6	3,539	7.9	24.7	9,862	6.8	23.7
- 반도체	28,333	-5.5	19.0	2,701	7.6	18.8	7,616	6.3	18.3
- 디스플레이 패널	1,684	0.3	1.1	137	-12.0	1.0	381	-6.0	0.9
- 전자관	120	19.3	0.1	12	-13.1	0.1	36	5.0	0.1
- 수동부품	1,106	-11.5	0.7	115	11.3	0.8	297	9.2	0.7
- PCB	1,302	-2.7	0.9	135	21.4	0.9	353	12.5	0.8
- 접속부품	3,596	-9.4	2.4	383	11.4	2.7	1,031	10.8	2.5
- 기타 전자부품	462	-6.1	0.3	56	33.9	0.4	148	31.2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7,890	7.9	18.7	2,600	18.2	18.1	7,729	25.4	18.6
- 컴퓨터	16,943	16.0	11.4	1,561	22.3	10.9	4,774	40.0	11.5
- 주변기기	10,947	-2.6	7.4	1,038	12.5	7.2	2,955	7.4	7.1
· 디스플레이장치	1,554	37.6	1.0	168	49.8	1.2	465	33.1	1.1
· 프린터(부품포함)	3,794	-11.7	2.5	361	7.3	2.5	1,002	5.3	2.4
· 보조기억장치	2,249	-16.2	1.5	214	7.9	1.5	594	-10.4	1.4
· 저장 매체	1,578	-0.1	1.1	122	-16.5	0.9	365	-15.1	0.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73	14.2	1.2	174	33.5	1.2	527	47.8	1.3
○ 통신 및 방송기기	31,277	-0.7	21.0	2,863	-1.9	20.0	9,336	28.7	22.5
- 통신기기	28,805	-0.1	19.4	2,603	-3.7	18.1	8,635	30.4	20.8
· 유선통신기기	7,704	7.7	5.2	735	24.3	5.1	2,036	20.7	4.9
· 무선통신기기	21,101	-2.6	14.2	1,867	-11.6	13.0	6,599	33.7	15.9
- 방송국용 기기	2,472	-8.0	1.7	260	20.9	1.8	702	11.4	1.7
○ 영상 및 음향기기	11,380	-3.8	7.6	1,134	21.3	7.9	3,046	21.8	7.3
- 영상기기	6,316	-5.2	4.2	678	25.4	4.7	1,718	16.6	4.1
- 음향기기	3,160	-6.4	2.1	246	-11.7	1.7	808	5.2	1.9
- 기타 영상음향기기	1,904	6.7	1.3	211	80.7	1.5	520	100.2	1.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1,669	-7.8	28.0	4,214	15.4	29.4	11,610	12.1	27.9
- 가정용 기기	12,735	-1.6	8.6	1,157	19.3	8.1	3,188	18.1	7.7
- 사무용 기기	726	-15.7	0.5	64	-13.2	0.4	213	-3.3	0.5
- 의료용 기기	6,570	-12.3	4.4	731	13.6	5.1	1,903	7.2	4.6
- 측정 제어 분석기기	8,690	-11.6	5.8	955	18.8	6.7	2,587	8.9	6.2
- 전기 장비	12,948	-7.9	8.7	1,307	12.5	9.1	3,719	13.0	8.9
· 건전지 및 축전지	2,293	-3.8	1.5	228	18.7	1.6	643	21.9	1.5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8	17,921	103.0	99,226	32.1	1,344	118.9
	2019	15,237	-15.0	93,826	-5.4	909	-32.4
	2020	19,255	26.4	55,017	-41.4	1,061	16.7
	2018.1/4	5,236	100.6	25,635	37.7	244	110.3
	2/4	3,854	88.6	28,160	79.2	379	351.2
	3/4	4,320	114.1	27,358	43.1	313	219.4
	4/4	4,511	109.0	18,073	-16.7	408	29.1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7	-15.2	24,180	33.8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16	110.2	14,963	-41.1	254	76.4
	4/4	3,583	-6.4	13,136	-45.7	394	1.8
	2021.1/4p	4,231	2.1	10,751	-16.4	210	14.8
직접구매 (수입)	2018	53,588	41.4	451,371	62.8	11,238	28.6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18.1/4	12,527	75.9	102,167	77.7	2,863	52.4
	2/4	12,543	84.5	98,533	73.7	2,665	42.5
	3/4	11,321	12.8	98,704	77.8	2,665	41.8
	4/4	17,197	23.4	151,967	41.3	3,045	-2.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p	18,962	53.6	132,807	46.2	6,873	115.4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1월	149.9	215.4	23.0	34.4	100.6	111.3	33.9	43.2	59.2	73.4	119.5	145.8
2월	156.3	221.8	20.3	30.1	93.3	103.1	36.7	45.8	60.2	74.5	119.1	144.5
3월	182.4	253.4	26.0	37.6	103.1	115.3	41.9	52.3	70.2	85.7	140.4	170.8
4월	151.5	201.2	17.8	26.1	89.3	99.9	40.7	49.1	48.4	57.4	112.1	136.0
5월	170.6	226.2	22.0	34.5	89.5	100.6	43.9	53.6	49.0	57.3	107.1	131.0
6월	173.6	229.8	24.6	38.3	101.6	114.7	47.4	58.2	59.9	70.2	126.1	155.3
7월	164.2	227.2	25.1	37.5	115.8	129.9	51.9	64.3	62.9	70.7	135.6	167.2
8월	173.8	242.8	25.4	36.9	109.8	122.8	51.7	65.3	63.4	72.0	133.1	164.3
9월	196.3	276.2	25.5	35.4	122.6	136.3	54.2	69.3	85.0	96.4	158.7	194.9
10월	175.6	256.7	24.3	32.0	113.6	126.4	47.7	63.8	92.4	104.8	146.3	179.2
11월	174.9	256.8	24.2	30.0	113.4	125.4	54.5	72.8	97.0	111.8	158.6	193.5
12월	192.8	284.4	25.9	31.3	115.5	127.6	57.3	76.5	102.8	117.9	168.7	205.5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7	100.9	148.0	183.8
2월	172.0	248.5	20.6	24.9	103.4	113.7	43.2	58.4	70.9	81.5	142.2	175.5
3월	195.4	281.9	21.0	24.6	119.3	131.3	50.6	68.3	75.5	90.6	170.4	209.0
4월	189.4	242.9	22.1	25.0	114.2	126.1	51.4	68.7	79.5	95.6	155.5	190.9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1월	121.2	166.0	34.4	45.2	90.3	101.0	148.7	152.7	130.8	149.3	108.6	108.3
2월	126.5	172.8	20.5	26.6	76.8	85.9	89.9	92.9	92.3	105.3	109.5	109.0
3월	132.7	180.3	31.1	38.8	99.4	111.6	144.1	148.9	135.4	155.0	128.6	128.6
4월	116.4	152.6	35.3	44.8	95.3	106.8	145.5	150.1	128.9	154.6	117.2	117.3
5월	125.9	165.5	26.3	34.8	88.1	97.9	137.7	143.3	130.1	155.6	98.6	98.6
6월	125.1	164.4	37.5	49.3	88.8	98.5	129.0	133.0	117.2	141.3	124.0	124.1
7월	145.2	196.7	33.3	41.3	101.4	112.9	128.9	133.1	128.7	161.0	131.4	131.0
8월	143.7	195.1	33.6	40.3	105.8	117.9	121.2	125.5	104.1	129.3	120.8	119.7
9월	145.3	197.2	23.3	26.2	107.1	119.1	135.9	141.1	111.3	138.4	126.4	124.4
10월	152.0	213.9	23.9	25.1	113.3	125.2	133.9	139.7	138.2	168.4	132.1	129.9
11월	148.0	208.2	25.8	25.2	117.8	130.1	147.0	153.1	159.8	192.8	128.5	125.8
12월	148.9	209.5	26.7	25.1	120.8	133.2	170.6	177.3	149.5	179.8	148.0	143.9
21.1월	148.2	207.5	33.5	30.9	119.9	131.6	206.0	213.9	161.8	190.0	148.3	142.3
2월	133.3	186.6	26.7	23.0	101.7	111.0	155.4	160.4	112.3	131.9	136.6	132.1
3월	151.5	212.2	30.8	25.3	130.5	141.5	198.6	206.3	134.1	157.4	162.7	157.0
4월	151.7	206.4	28.9	22.3	123.6	131.1	166.2	172.5	149.2	174.9	135.7	131.1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 과제 책임자 : 김현중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박찬선, 최재원,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30, 팩스 : (042) 612-8209